# 東亞日報

今日八面

新聞價格 壹個月金壹圓 壹個年拾壹圓 郵稅共
廣告料 五號活字一行金壹圓 四號活字行 一行五拾錢
發行人 梁源模 編輯人 薛義植 印刷人 林靖烈
發行所 京城府光化門通一三九番地 株式會社 東亞日報社

## 社說

### 紛紜한戰爭說에對하야

一

昨今의 電報는中國形勢에對하야 어떠한새로운實地的展開를報할이업는 反面에各國의宣傳戰과 示威的行動의報道가還不한다其中에도 英國과露國方面으로나오는 戰爭準備의說은 吾人의 깁흔注意를삭으다「英國陸軍隊備兵召集에 關한政府의 發表는國民을놀라게하엿고「戰爭이냐가?」하는 말이盛히流行되고「教會에서는平和를祈禱하야 一九一四年의歐洲大戰勃發當時를 想起케한다」하며「勞農露國西比利亞에서近近戰爭이開始될것이라고 말하는同時非防禦戰에備할것이라고高唱」한다함은 消報의一部어니와 果然이時機에 戰爭勃發의可能性이 잇는가업는가 國際事件의 進展도 解로理性으로判斷할수업는突發性을띄는수가 잇슴으로 一言으로 斷定할수업스나事實에가順理的으로發展된다 推測할때에는 아직戰爭의時機가오지아니하엿다고볼수밧게업다

二

첫재로 今番中國問題에가장 痛切하게 傷感과利害感을 늣기는英國은 二萬의兵員과軍用飛行機二十六輛行機十機를 실고 戰艦戰鬪艦驅逐艦其他무엇무엇을 上海에集中하는同時에本國으로備兵을召集하며또 列國特히日本에對하야 共同出兵을慫慂하고잇다 그러나本國內에는 勞働黨의猛烈한反對가잇서「漸次起하려는 災害를防止하기爲하야」同盟罷業斷行으로 政府를威脅하려하고 歐洲大戰의 記憶이 아직머리에서 사라지지아니한 一般國民의反對도反對려니와 그慘害에서온疲弊에서 아직도回復되지못한國力을가지고 到底히新式戰鬪와精銳한武器를가진 中國國民軍에對하야 鴉片役이나義和團事件時와가튼武力政策에出하는것은 想像도못할일이며더구나印度 埃及 愛蘭關係等의弱點을가진今日이라

三

둘재로日本은昨年의對中强硬策이不利益이엿던것을 切切히깨달은今日이요 더구나今番의中國事件이 在中日本利益을直接威脅함이 比較的僅少한即 此際에日本은滿蒙의 旣得權擁護에專心할뿐이니 南方政府가滿蒙에까지 그勢力을미치지못할동안은 그의피리에춤출것이 아니 當分間의得策이라看做할것이다 南方의排英親日的態度가 日本朝野間에잇는것은 政策을迎合하려는 態度가잇는것은 政策觀上에波及하야 新興勢力이 아니라 戰鬪하는爲政者들의 心理이니日本亦是戰爭에끌려어드러갈만한勇氣가업을것이다

四

다시勞農露西亞로눈을돌릴지라도 滿蒙이나中國本部에서日本과 正面衝突할機運에서지는 아직못니르럿스며 傳統的排英政策에잇서서도英國이積極的으로나오기前에 먼저밧아쇨必要가 기에는國內의實力이不許하는것이니中國으로하여금 그의방이「볼셰비키」노루하게함으로當分間滿足할것이요 따라서世界는 第二次의世界大戰이太平洋을中心으로니러날이라고想像할수는잇스나 그러나吾人의觀察로서는 아직그時機에到達하엿다고는보기어렵다 列國의宣傳乃至示威의行動은 그內容된戰爭의危險性을證明함에는充分하지만은아직그時는아니라고할것이다

五

東亞에戰雲이자주히始作한지 國際政治의中心은確然히東亞로遷移되엿다 露가잇고 日이잇고 米가잇서서 各其相中心點에자리잡은 白衣人의用處는무엇인가 이때에잇서서東亞의 自然的인友誼와 共同戰線의 分裂되는有力한設據다 昔日에 北京을占領하엿던바와는周圍事情과時代가大端히相違되엿음을볼수잇스니 白耳義와英國과同步調를取함에도再三躊躇할이만치 利害的關係가切實치 못하야 足할것이다其他米佛伊各國은英國과同步調를取함에도 反抗勢가 資本的侵略主義에對한 反抗勢는 果然가졋는가

## 租界는共管? 特別區域? 中英交涉經過

英國의漢口租界回收問題에對하야 最後의決定을한것으로推測되다 그러고英政府로서는漢口租界를 以前부터「오마리」陳友仁兩氏間에交涉이繼續되던바二十六日芳澤公使와英國公使「랍프손」氏의會見狀態로는成立된것이라 解決案은大略그決定되엇스나 觀測된 다即國民政府側에서는 右租界를 英中共管으로하자는 政府案에贊成論과反對論이잇서서結局決定되지안음은 其間二十六日 英國側은英國의租界問題에對한 態度는 明瞭하게되엿스나 此等에依하야 보더래도 大體의決定을 듣지못하엿다 中의共同管理下에置하자고主張하는듯한데 何如間英國側은이미「오마리」陳友仁兩氏交涉의結果 明瞭하게되것으로觀測되더라

## 英은新對中策으로 租界權을不固執 但上海沙面租界는例外

英國의漢口交涉은新對中政策을 基調로하야반드시租界權을固執치안코交涉을進行하고잇는데 英國은長江沿岸만아니라北中에도此原則을適用하려고이미天津租界還附에對하야도 準備를進行하고잇는데上海沙面租界는斷然固執하기로決定하엿다더라(北京二十七日發)

## 國民政府 附加稅實施 左記規定으로

國民政府는廿一日來左記新稅의 賦課를實施하엿더라(漢口廿六日發)

一、上海稅關에서免稅되는輸入品에도一率로附加稅를課함
二、現行船舶噸稅의五分을附加 稅로써更히課함
三、堤防稅로써關稅의五分을新히課함
四、英獨逸露西亞租界의家屋所有者에對하야家賃一個月分을課함
五、中國人船客에料金額에應하야通行稅同樣의稅를課함

## 中國民衆運動에 英國은不關與 但上海租界가襲擊되면 絶對로必要한處置를講究

英國의對中政策에依하면英國政府는廣東側과의交涉이失敗에도라간境遇를생각하고廣東軍이孫傳芳軍을破하고上海에侵入코저하는形勢를假定하야最後의手段으로上海全市防備의計劃에對하야審議하고잇는데이에對하야政府는決코如斯한最後手段을豫期하는者가아니오

一、陳友仁과의間에協調가成立되도록極力努力함
二、英國은中國의革命的外交에는關與치안는다廣東軍이上海를獲得하야和平하게行政을執行하면吾人等은其權限을侵犯치아니하나萬一如斯한境遇에處하야도英國은租界의襲擊이되엿든지此를遂行치안을수업는事態에對하여는軍事當局의要請에依하야對하야는絶對로必要한處置에地을수업다고發表하엿더라(倫敦二十六日發)

## 在留民保護로 軍隊出動 勞働黨宣言에 英政府回答聲明

英國外務省은獨立勞働黨의宣言에對하야左와如히回答聲明하엿다

一、中國의政治는從來에다른무엇보다도優先的으로英國의國策上中國의統一獨立을助長하고그에依하야英國의利益을保全하는것이 英國의在中國國民의生命財産을保護하는데在하며그爲하야軍事行動에밧고쳐할必要에依한것이라고解할수…

## 日、外務省歡迎 戴天仇氏渡日을 日本도眞意를披攊한다고

廣東中山大學長戴天仇氏가近近國民政府代表로渡日함에對하야는高尾漢口總領事로부터外務省에報告가잇섯는데外務當局에서는時局이紛糾한際戴氏의渡日은 매우意義가잇는事로勿論氏의渡日을歡迎하며國民政府의意가의는바를充分히듯는同時에日本政府의眞意를披攊할터이라더라(東京電)

## 露中國境에 赤軍移動說은 某國의宣傳

露西亞가露中國境에赤軍移動을開始하엿다는報道에對하야當地勞農側에서는目下中國에잇는勢力의回復을當한某國의宣傳이라고말하더라(哈爾賓二十七日發)

## 英中交涉難澁은 英威信에關係 領地特히印度가憂慮 英國出兵事情

英國이上海警備의目的이라稱하고二萬三千의大兵을動員케한事에對하야는如何가지觀測이만하야事態가甚히不穩한中이바가장首肯할만한觀察은如左하더라

(一)事實上英國今番의出兵을單히上海租界의警備와在留自國人保護로보아서는其數가너무夥多하고又軍事를爲始하야裝甲車外지出動케하는것은分明히積極的戰備라할것인데그結果발서英中兩國의開戰을豫想하고中國時局의前途를憂慮하는者가만타 그러나此出兵의裡面에는엇던英國의對中諸問題를武力으로만解決코저하는것이라고볼수업는事情도잇스며그러타고單히示威的行動이라고速斷할수도업스니結局은一種의敵本主義에依한것이라고觀測할수잇다

(二)從來는日英協調에이름을빌려非常한境遇에는恒常日本을先頭로하야解決하든바今番은日英相互의對中政策이根本的으로相反하야日本의助力을求하기어려운不安

(二)漢口租界를占領當하고此를恢復코저하는平和的交涉에國民政府가마음대로應하여주지아니할것으로同問題를放置할時에는英帝國의輕重을보이게되여印度에如何한影響을與할지모름으로英國은此를가장恐怖하는바過般開催되엿든英帝國議會의內容을보아도各自治領及殖民地가漸次獨立으로가는傾向이잇는中에英本國惟一의寶庫인印度에서萬一의事가잇슬때는英帝國崩潰의危機에陷한다하야印度를威壓하여둘必要가切迫한事

(三)現保守黨內閣은資本家를重要한背景으로함으로對中投資團其他關係資本家의高壓的强要에動搖된事

(四)英國政府의眞意는徹底的武力主義에依한것이라고解할수…

## 英自由黨分裂 그레子一派脫黨、新黨樹立計劃

英國自由黨은「로이드·조지」派와「아스퀴스」派가分立하야오래反目하여오던바「아스퀴스」派가勝利하야「로이드·조지」氏가事實上의首領으로黨을統一하게되엇는데今番에又「그레子」를首領으로하는反「로이드·조지」派의黨員이드되어自由黨을脫黨하야新黨을樹立하려고劃策中이다脫黨組의人物들은「서·드날드·마크린」「프린글」「서·로버트·하드손」「란시만」「서·존사이몬」等의諸氏로何者나「아스퀴스」派에屬한者들도有名한諸氏를除한他는自由黨內에殘留한다더라(倫敦電)

### 脫黨組人物 다政界의名士

**사이몬氏** 自由黨의領袖로서有名하다「옥스포드」大學出身의辯護士인데千九百六年下院議員을歷任千九百十五年의聯立內閣에內相으로入閣하엿스며後에法相이되엇스나徵兵問題로意見이不合하야辭職하고말엇는데大戰中에敢然히出征한事도잇다千九百十八年의總選擧에는落選되엿스나千九百二十二年에는當選되엿다

**란시만氏** 商相(農相、文相)領袖들이거의落選되엿다自由黨後任한自由黨名士인데鉅橋大派에서推擧되야其首領이되고千九百十年에「아스퀴스」氏가下院에當選되얏때까지其任에잇섯다立候補하야初陣의功名을得하엿스나千九百十八年에…學卒業後實業界에入하엿스나政治에興味를못치고政界人이되엿다千八百九十年「알브로」區에서 스베리」에서下院으로들어가게되엿다 千九百十八年以來二回落選되엿스나千九百二十四年에 「듀」區에서當選되엿다(五十八歲)

**프린글氏** 「글라스고」大學出身으로千九百十年「노스·웨스트」區로부터千九百十年에下院議員에當選되엿다가千九百十八年에는…에當選되엿다「란시만」區에서의演說家로「레코드」를가지고잇다(五十二歲)

**마크린氏** 辯護士出身으로千九百六年「바스」市로부터下院議員에當選千九百十…(五十六歲)

**하드손氏** 千九百二十三年에「로스그리프」郡에서下院議員이되여…功勞者이다(六十二歲)

## 加奈陀勞働黨 英國出兵에反對 「加奈陀는中國에加擔」

加奈陀勞働會議議長「롬·무아」氏는二十六日中國問題에對하야「加奈陀勞働黨은英國其他의搾取로부터脫하려는中國에加擔한다」고聲明하고英國의出兵을批難하엿다英國은加奈陀에도出兵을勸誘한形跡이잇스나加奈陀勞働黨은極力出兵에反對中이더라

## 英陸兵三百名 上海에上陸

上海守備에當할英國陸兵先發隊二個大隊三百餘名은二十七日午前八時「레오클」號로到着하엿다二十九日에는「엠프레스으프카나다」號로約二大隊가到着할터이며各國義勇隊의陣容도整頓되엿다

## 英兵送遣에 日商船契約

中國出征兵送遣으로英政府는懷하軍隊艦船의集中에努力中인데印度方面에서도軍隊並食糧品을輸送하기爲하야倫敦海運市場에서東洋向日本船을物色하고잇는데이미大阪鐵鋼所一洋丸도備船契約을決定하엿스며其他四隻의日船도不遠契約되리라더라

## 英政策에 伊太利贊成

伊太利政府는中國에잇는伊太利益을保護하기爲하여는上海에對한英國의政策이正當하다하야主義에잇서서이를贊成한다伊太利諸新聞은中國方面에서의電報를大大的으로揭載하고形勢의推移에對하야一般으로多大한注目을惹起하고잇다伊太利政府는二三의點에서英國과意見이相異하고잇다例하면對中債權問題가그것인데目下英、伊兩國間에意見을交換하고잇는것은此問題라더라(羅馬廿六日發)

(倫敦廿七日發)政府는中國의難局에對하야友誼的解決을進行할希望을가지고잇고寬大한讓步를할準備가잇다그러나中國의秩序가紊亂할念慮가잇슴으로政府는我在留民의生命을保護할큰責任을다하지안을수…

업스니我軍隊의出動도다만이目的을達키爲함이다

## 日中通商條約會議 關稅自主權確認을要求 日本側承認?

二十八日의日中通商交涉은中國側으로부터關稅自主權의確認을條文中에明記할事를要求하얏는데日本은關稅會議勞頭에承認한關係上異議업시決定하리라는데此代償으로日中間의相互的互惠稅率의諒解를與할터이며次回는治外法權問題를討議할豫定이더라

## 租界回收도 中國側提議

日中通商會議에中國側의交附한草案에는領事裁判權의廢止租界回收를明瞭히提議하엿더라(北京二十七日發)

## 南方政府에서 外人經營學校 回收를決議

廣東政府는國民黨本部와의聯合會에서中國各省에잇는外人經營의學校는中國의教育原則에依하야全部此를回收하기로決議하엿더라(上海廿七日發)

## 治外權撤廢와 關稅自主交涉에 寬大한精神으로應對 米國對中覺書

米國國務長官「켈록」氏의對中覺書는廿七日當地에到達되엿는데全文은約二千語로成立되엿고內容은三段에分하여잇다其第一段에米政府는中國에잇는治外法權撤廢及完全한關稅支配權을中國에與할準備가잇다고聲明하고米國은恒常中國의統一及獨立並中國國民의反省을希望하엿다그리하야米政府는中國의어느政府와도交涉을開始하고華盛頓條約에依한附加稅를知悉할뿐아니라更히完全한關稅自主權을中國에還附할準備가잇다但中國이自主權으로써關稅를制定할境遇에米國은外國과同等한待遇를受할것이라하고治外法權의交涉에應하야하는門戶開放과 米國의權利를保護하기爲하야寬大한精神으로써對할事를聲明하엿더라

四、米國은日下中國의何人과交涉할것이냐는 何故오하면米國은中國國民의 信念을述하야萬若米國民의生命財産을保護할수업스리 라는治外法權撤廢하면米國民의生命財産은罪를不完全한中國裁判에依賴치안을수업는所以를述하고中國이速히國內의秩序를定하고國法의統一制定을完了함과共히常同한政府의樹立을希望한다

五、華盛頓條約에規定한二分五厘五分의附加稅를實施키爲한新協定交涉에應함

六、中國의關稅自主權回復交涉에應함

七、治外法權撤廢에關한新條約交涉에應한但治外法權은中國이居留米人에對하야法律에依하야 支期…

六、米國은必要한境遇에外國과 하여야조흘지不明한外닭이다 約締結交涉에應할準備가잇스나新條約調印後上院의批准을 보기까지는現存條約을廢棄치 아니함

## 日本은警察權을除하고 天津租界를返還? 佛伊兩國도贊成

外交團會議에서附加稅案을附議하다고諒解를求한後公使는正式으로各國의贊成을求하엿다 日本을除한各國은贊成하엿는데芳澤公使는列國의華府協定로警察權을除한天津租界를返還할意가잇슴을述하엿는데佛伊兩國은어되어서지든지中立을嚴守함無視의態度를遺憾이라하야日本도贊成하고日本의贊同을求한다 은中國과單獨으로問題를解決한다고述하엿더라(北京廿七日發)

## 聲明書內容

沈默을직히고잇든米國은國務長「커록」氏의名으로써左와如한對中政策聲明書를發表하엿다그要旨를들으면

一、米國은中國의國民的覺醒運動에同情을表함
二、中國의南北抗爭에對하야米國은어되어서지든지中立을嚴守함
三、中國의不平等條約改訂에關하야는…

## 安國軍 不遠態度聲明

張作霖氏는現下의混沌한外交間題에對하야安國軍의態度를聲明할要件이되야…「스트롱」氏의報告를承認하야漸進主義를取코저表明한것이더라

## 外交團會議 附加稅案討議

二十七日外交團會議에서附加稅案에對한討議가잇섯는데도되어 意見이一致되지아니하야 그대로散會하엿더라(北京二十七日發)

## 中國의危機는 日本態度로決定 某外交官談

英國의態度에對하야公使團外의一外交官은말하되右手에匕首를든格으로交涉을하고左手에福相한態度를持하고잇는데 이는…

## 米國은漸進主義 平等條約締結要求에 鞏固한政府樹立을俟하야交涉

中國國民政府가即時平等條約締結을要求함에對하야米國大統領「쿨리지」氏는此를拒絶하엿다右拒絶決定은國務省으로부터廣東政府에與할覺書中에示할터이나其內容은左와如하더라(華盛頓廿六日發)

中國國民의希望에對하야多大한同情을表明하고米政府는中國에서合法的代表政府成立을俟하야不平等條約改正交涉을할터이며今日에即時治外法權의特點을撤廢하지말고徐徐히進行하기를主張하며更히中國의法律裁判及現下의形勢가到底히中國에잇는米國民의生命財産을保護할수업스리라는信念을述하야萬若米國民의軍隊及裁判權을撤廢하면米國民의生命財産은罪不完全한中國裁判에依賴치안을수업는所以를述하고中國이速히國內의秩序를定하고國法의統一制定을完了함과共히常同한政府의樹立을希望한다

하려고近近列國에對하야重大宣言을發하리라傳하더라

## 朝鮮在留中人 蔣介石을爲해 軍資金募集

英의出兵에依하야蔣介石氏는多少不利한立場에잇는데最近京城及仁川其他隣接地의在留中國人主로廣東政府와直接利害를有한南方出身의中國人은蔣介石氏에對하야同情하고軍資金의一部라도據出하자는意見으로在留中國人으로부터軍資金을募集하고잇는데當局은經過를注意하더라

八、中國官憲이居留米人生命財産을保護치아는境遇米國政府는危險을未然에防止함에는自力에依할外他道가업스며日本의態度로모든것이決定되리라고말하더라(北京二十六日發)

的으로撤廢함

한充分한保護를與할時에漸進的으로 中國은充分한警戒를要한다此는中國領海에米國海軍을維持할것으로함

## 濱口內相 本黨과接近? 二月十日歸東

熱海「安펠」에轉地療養中인濱口內相은二十八日歸京의豫定을變更하야二月十日까지滯留하기로되엿다內相은其後漸次恢復되여가는데內相의轉地療養에對하여는政治的意味가잇다고傳하는바事實上中央政界와濱口氏와의連絡은意外頻繁하며廿七日에도本黨經濟界의某有力者가來訪하야長時間濱口氏와協議하엿는데特히本黨과內相과의關係는近來매우密接하게되는模樣이더라

## 橫說竪說

◇中國南方政府의、土地條例는地主收益을、收穫의二割五分으로하엿다고、六七割을흔니밧는東拓은、남의일로만아니볼터이지

◇요즘日中交涉에도、劈頭의議題가「關稅自主權」이라고、이어죽속에、어느手段을피울지、日本外交의、단단한試驗거리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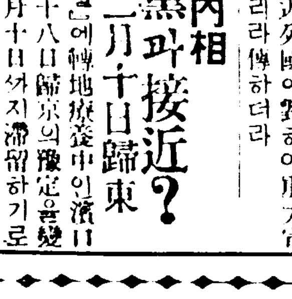
◇日本勞働農民黨에서는、黨員에게서、五錢式徵收하야、二十六名選擧費로쓴다고

◇幾百萬圓을要하던、舊政黨의選擧費와對照하고、喜悲의感慨에눈물기우는黨首도잇슬듯

## 本報押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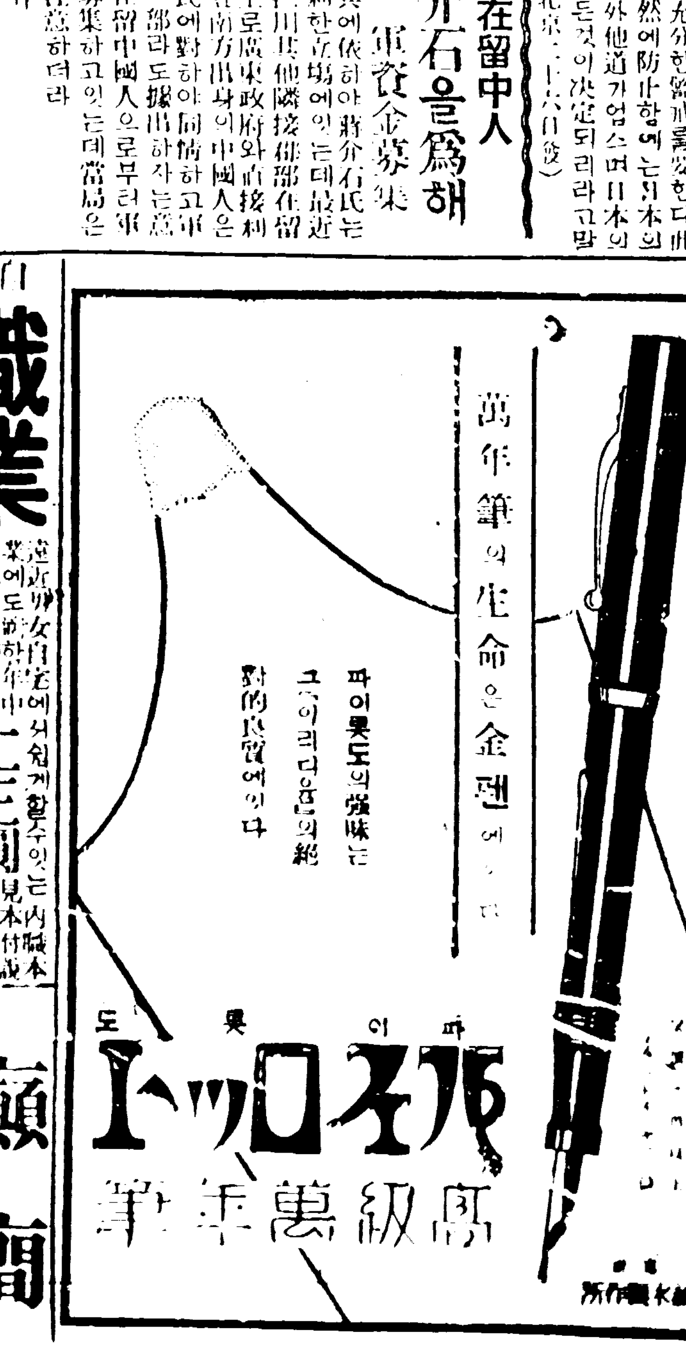
一月二十八日附發行本報第二千二百九十九號는記事中當局의忌諱에抵觸된바가有하야發賣禁止의處分을當하얏기로該抵觸된記事는削除하고號外로發行頒布하얏삽기玆에謹告함

東亞日報社




## 職業

在宅 職業 遠近男女自宅에서쉽게할수잇는內職本業에도 無休●熟練●月收 一二三圓以上 見本付說明書無代 京城本町 敬光店




## 癲癇

癲癇은永年의痼疾이라도完全治療 富吉製作

## 男女生殖器 鮮圖

兒孩바라는사람도 바라는사람도보라
男女生殖器 鮮圖 (附錄)●性交法의研究 ●避妊法의研究 ●花柳病豫防法
美人裸體寫眞 特價金壹圓 東興堂

# 窮農과 勞働者의 일터 만은늘어가

—道路、河川、港灣、鐵道、水電工事等 사유로동자의일거리는늘어갈형편—

## 注目되는 朝鮮의 勞働界

조선공업이발달하지아니하야일뎡한 직업에종사하는로동자라고는 몃몃 공장에종사하는일부인일만이천륙백사십오인을입하아겨우 팔만륙천 구백사십칠인에불과하고 그남어지 약팔십칠만명가량은 일뎡한 직업이업시 시절을따라수초(水草)와계절을따라 유목민(遊牧民) 가치조흔직업을조차 남북으로류랑하며 더욱십륙만이천여인이라는개산조사에 포함된 농업로동자로분명히 나타나잇는 궁농(窮農)은 머슴버리가나서면 농촌에서농부로 행세를하자면 사리가업서 다든 디방으로 돈버리를 나서게되면 보통로동자라고도 할수업고유민(遊民)이라고도할수업는 형편에이름으로 확실한숫계를잡을수업서 로동문데를 해결함과조가조금도업는 모모동자가 몃만명몃천명식 한서번에 필요할때에는 그수비에 상당한 곤난이 밋친다고 하는데위선이몸부터 씨울일가리는 산미증식계획과텰도십이년가계획과하천과항만개수장진강(長津江)수뎐 조선수뎐등 큰공사를 비롯하야 삼사만명의로동자가 필요할터인으로 일자리의 부족은심하지 안을터이나 공사대우가 일반로동자가 예상한것과는 크게틀리여항상 위만한 해결을보지못하고말념려가이다더라

### 慶北管內 中國人勞働者

지난십이월 말일 현재로경북보안과에서 조사한 경북안에서 품파리로 잇는중국인로동자수를 직업별로 논하보면농업에 종사하는자가 이백스물다섯명인데 그중대구(大邱)에 팔십오명과달성(達城)군에마흔두명이 대원만히잇스며 제조업(製造業)에종사하기를원백스물한명인바 이중에도 대구에는 팔십삼명이마목공(木工)에십칠명석공(石工)에여섯명、도여에다섯명、그밧게상업에종사하는 자가일백사십명을입하아 오백열세명 이라는데경쥬(慶州)로만흔데는저긔와갓치 대구달성 두곳이라하며그가운데 상역에 종사하는자로는영일군에오십명이데하ㄴ다는바다시그들의밧는바 임금은아레와갓다더라(대구)

▲農業 一日 八十錢 ▲製造業 一日 六十八錢 ▲木工 一日 七十錢 ▲石工 一日 一圓七十錢 ▲土役 一日 五十錢 ▲其他 一日 七十七錢

### 職工傭人七萬

◇전도서에잇는직공용인수

조선안에잇는 각종공장과 회사에 고용사리를하는 직공과 용인은 최근조사로 조선인이칠만사천삼백이인 일본인이일만이천칠백사십오인 합계팔만칠천구백사십칠인에달하고 직원수효는 이천오백이십오명인데 톄신국에서는 저금장려의한방법으로 『저금상식』과 『저축신념』이라는 적은책오만부를 인쇄하야 각공장상회사에 배부하야 직공들의저축심을장려한다더라

## 六大臣을兼任한 伊太利못솔리니

# 徹底한無髯主義 朝飯은牛乳一盃

—잠자는동안에는큰일이아니면절대로깨지안어 옷은손으로입고눈으로는그날신문을읽사천리—

## 黑衣宰相日常生活 (一)

이태리(伊太利)총리대신못소리니씨는 총리대신을 비롯하야 외무(外務)내무(內務)륙군(陸軍)해군(海軍)항공(航空)등도합여섯가지대신(大臣)을겸임하고 그에다가몃십만명의 당원을가진 흑적삼당(黑赤衫黨)사지 홀로 주재하여나가는 정력가로세계에이름난사람으로 그의생활내용은아직도 세상에 알려지지안엇섯는데『로마』에잇는 통신원『몰간』씨에게대하야 극히 흥미잇는 그의일상생활상태를다음과가치 몸소발표하얏다

### 就眠은十二時後

아참은일곱시싸지

밤잠은 오전령시부터 여섯시간을자는데 한번침상에 나아가면 아츰일곱시싸지는엇더한일이잇든지결단코 잠을깨이지말라고 집안사람들에게 명령을 해두엇소이다 흉보(凶報)라는 것은될수잇는대로 늣게듯는것이 조코길보란충분히자고 난뒤에상쾌한심신으로 들으면한칭더깃분일이니까 잠자다가는 일데로듯지도안코 보지도안는것이 조흡니다

### 徹底한熟睡主義

깨기도긔게가치뎡확히 합니다 넷날、나폴레온도나와가튼주의가잇섯드람니다 내가잠을자다가 불시에일어나보일은 로마시던긔국(電氣局)에화재가잇든때와『마가리타』황태후폐하께서훙거하셧슬때와다음에는『셀프』사건교섭을할때등 도합 세번밧게업섯습니다 나는 오래동안습관을그러케하여서 매일 아츰닐곱시만되면면각종(眠覺鐘)보다도 정확하게 잠을쌔임니다 눈을버쓰면 이불속에서 기스것한번을 하고나서는 뛰여나옴니다 눈을뜨고도 이불속에오래누어잇다가 일어나면 종일토록따분하고 근육이 흐늘흐늘 해집니다

### 수염싹기를勵行

수염은길으면불길

사리에서나와서는즉시목욕탕에 들어가는데목욕물의온도는나의데온가튼뎡도로그저싸듯하게하지요목욕탕에서는반드시날마다 수염을싹슴니다나는본래수염을 길으지안는 주의입니다 더욱이 구레나룻에대 해서는 대반대지요넷날부터『로마』에서는 구레나룻이 류행되든때는 나라가쇠잔해고구레나룻이 그림자도 업든쌔는 나라가 흥하얏섯슴니다 그래서 나자신은 물론이요우리 당원 청년들에게도 구레나룻을 다싹그라고햇슴니다

### 着服中新聞閱讀

옷은닥치는대로입어

목욕을하고 나서는 승마복을입슴니다 그런데 이시간이다른사람들과 달라서나에게는 극히중요한시간 입니다나는 그날조간신문은 전부승마복을 입으면서 훌터봄니다 내가옷을입는 것은 흡사히『타이피스트』나『피아니스트』가건반은 보지안코손을 놀니듯이『넥타이』는목에버선은 발에 족기는등에 — 아조변통성업는 것들이니까 눈싸지쓸필요가업슴니다 그리고 나는신문에경험이 잇는고로 옷을다입는 동안에는 신문전부를 읽어바립니다

### 朝飯은牛乳一杯

소요시간은일분동안

그다음에 곳아침밥을 먹는데내밥은우유한컵으로뎡하여잇스니 써한목음 물덕마시자면 일분간도채걸니지 안슴니다 그리하면 나는고만 출근할준비가 다되는 것입니다 그러고나는 시간절약을하기위하야 가족들이라도 조반만은 임체로 회식을하지안키로하얏슴니다(게속)

# 到處에脅迫狀 押收만數十張

—협박장뒤를이어괴상한투서—

## 鍾路署에投書가頻頻

종로서고등게 에서는 재작이십칠일이래 매우긴장된태도로 비밀리에 무엇을 밀의하고잇는중이더니 작이십팔일에는 일흔아츰부터 길야(吉野)경부보이하 동게의 형사전부가 일제히시내 각방면에 흐터지어 대활동을개시하엿는데 사건의 내용에대하야 례에의하야 역시절대비밀에 붓치나 탐문한바에의하면 요새 동서에 검거되야 취조를밧고잇는 박준성(朴準聖)의 협박장사건을전후하야 시내모모 유수한 부호의집 수십처에도 협박장을 보낸사건이 쇼리를니어잇서 동서에 압수된협박장이 수십여장에달하엿스나 엇던자의 소위인지는 전연히알수업는 상태에잇서 자못고심하고잇든중 지난이십칠일아츰 동게에 엇든무명인(無名人)으로부터전긔빈빈한협박장 사건에대한괴상한투서(投書) 한장이 드러와섯으로그것을 유일한근거로하야그와가치활동을개시한모양가튼데그협박장은 엇던불량학생의소위나안인가하고그방면을 가장엄탐하는 모양갓더라

### 大槪私嫌으로

빈빈한투서의내용

每月四五十張式

별항투서에대하야는동서에드러오는것이매달평균사오십동식에 달하나전부가사혐(私嫌)으로남을모함하라는가장밉살스런생각을가지고 누구는 크게노름을한일이잇섯다던가또는누구는누구와간통을하엿다던가하는추한것이만히잇고또그중에는어대누구는폭탄을가지고잇다던가혹은 〇〇단의단원이라는등의말을써서경관의심당을써놀케하는일도 간간잇다는데그투서들은모다내용의성질을짜라사법、고등량게로돌리면 그에의하야 대개한번식은의례히조사하여보되간혹사실도잇스나대개는새빨간거짓말로 공연한 헛수고만하게 되는일이만히잇다는데 별항협박장사건에대한 투서는 여러가지뎜으로보아 준신할만한 뎜이 상당히잇슴으로그와가치활동을 개시한듯하더라

### 舊曆歲暮

◇街上所見◇

(一)

아직도 우리조선사람의 설은 음력일월일일이 습관상 설갓다 작이십팔일은 음력으로 섯달스무닷새ㅅ날 즉 회동좌시(會洞座市)날이엇섯다 녯날로 일으면 이날부터 동리마다 설비음옷감과 설잔채음식감들의 장이서서 동리 동리마다 설긔분이 넘치엇섯다 그러나 양력과 음력두설을 쉬이게된이래로는 음력설이 차차로히 쓸쓸해지고 더욱이 도회디에는 한칭 더 설긔분이 엷어져간다 그러나 쓸쓸해지기는햇스나마 녯날의 자최는 살아지지아니하야 경성시중에도 작일아침부터는『금박』『도든란』당기며『허리띄』『주머니끈』장사가 드문드문이 도라다니기시작하엿다 ‖사진은 회동좌시날의 엇목장사‖

# 借地契約解除

## 不法處分에不安한同胞

—영구현지사가재주동포를불러 차디계약을해제하라고엄명해—

지난십이일에 영구현뎐장태 경찰서데륙구순경류종삼(營口縣川庄台警察署第六區巡警劉宗三)이가동자구(董子溝)에사는 조선인오위긔(吳偉基)의집에가서 너의아오인석(仁錫)이가 유력작년칠월분에게가보(蕭家堡)에잇는중국인리선동(李善同)의 토디삼백두락을 칠천원에 륙년간의차디계약(借地契約)을데결한사건에대하야 영구현공서(營口縣公署)에소환하엿스니동행하자하엿스나 거절하고 가지아니하엿든바 십칠일에 다시인석(仁錫)이더러 출두하라하는 고로 가서본즉 근지사(新知事)는 계약당시의 일을심문하더니 디주리선동(李善同)에게대하야차디료(借地料)는인석에게로반환하고계약은해제하라고명령함으로 오인석은 계약한것을지금에 와서 해약하라함은 리유가 부당하다고 거절하엿든바 지사는 외국인과 차디계약하는데는 년한을 뎡치아니하는 규뎡이니도라가서 곳해제하라고 명령하여 보내엿다는데 각처에서 이와가튼 소식이 분분함으로이주동포들은 불안이 만타더라(봉텬)

# 犯人은前科四犯

## 親母와情婦를引致取調

그러나범인의거처는불명

佩劍强盜事件續報

긔보=지난 이십륙일밤 시내통의동(通義洞)백사십사번디채인석(蔡仁錫)씨의집에동대문서순사의일허버린댱검을가지고침입하야이십원을 강탈도주한 범인에대하야는피해자의진술(陳述)로인상과 기타를자세히 알게되야 그범인이 엇던자인지는 대개추측하고 목하종로、동대문량서의련합활동으로그자의소재를엄탐하는중인데 그범인은절도사긔(詐欺)등의전과사범(四犯)이나 잇는자로 관계련두자도상당히잇는듯 하다하며 이에대하야재작 이십칠일밤 종로서에서는종로(鍾路) 오뎡목 모처에서그범인이라고 지목하는자의어미를 다려다가 취조하여보앗스나 엄마전에집을 나가서는 입때드러오지도 안엇고 또아모소식도듯지못하엿다고하야작이십팔일오전에는 다시 동리에서 범행을한 이십륙일밤에 범인과 갓치갓다는 모내외주뎜(內外酒店)의색시한명을 다려다가취조하는중인데 금명간으로는 그범인을데포하게될듯하다더라

### 廣州에도强盜

역시당검을가지고

재작이십칠일 오전두시경에 경긔도광주군중대면송파(廣州郡中垈面松坡) 김명보(金明甫)(七二)의집에도 쇼사의 패검(佩劍)비슷한댱검을가진 강도한명이침입하야 돈을내라고 협박하다가 칼로주인을치서 부상만식히고 아모것도 빼앗지못한후 그대로종적을감추엇는데 동서에서는 즉시 이사건을각디에급히통지하는동시에범인수색에크게활동을개시하엿스나 아즉단서도 엇지못하엿다는데 그범인은 지난이십륙일밤 시내통의동(通義洞)채인석(蔡仁錫)씨의집에침입하엿든 범인과 다른범인이가튼수단으로 세말당검강도(長劍强盜)류행에 일반경찰은더욱눈이 밝게 활동하는중이더라

### 禮智洞에小火

신위촉불이부터서

작이십팔일오전아홉시 오십오분경에시내례지동(禮智洞)사번지(배오개시장)사긔뎜 림원송차(笠原松次)(三一)의집이칭에서불이나서 창경원(昌慶苑)가든 뎐차가지롤치못하든중 소방대의진력으로 동을이십삼십분경에진화하엿는데 소실은 반소라하며 손해는 방금조사중이라는바 원인은이칭신위(神位)압헤세웟든초ㅅ불에서불이당긴것이라더라

### 假電球를주고 眞電球를騙取

지난이십륙일오후여섯시쯤되야 시내향촌동(香村洞)이백칠번디 차익환(車益煥)의집에뎐긔회사직공과 조곰도틀림이업는 엇던자가들어가서 나는 뎐긔회사사람인데 금번에아조조흔뎐구(電球)가새로왓스니 댁에도밧구어드리마고 교묘한수작을한후 가지고왓든 궤속에서 뎐구를내여 세개를 밧구어씨고 그집에잇든 뎐구는가지고도라가버리고밤이 늣도록 조흔뎐구라고 새로밧구어씨인뎐등에불이도모지켜지지 아니함으로 그때야 이상스럽게 녁인 그집사람들이 소위새뎐구를빼여가지고자세히보니그뎐구는백렬선(白熱線)이쓴어져잇는것을 발견하엿다는데 그밧게도 아마 천과수단으로써 임의버리게된뎐구를가싸뎐긔회사원이가지고가서멀정한 조흔뎐구와 밧구다 새것으로팔아먹는자가 만흔듯하다 항으로일반은 극히주의할바이라더라

# 三等飛行士

◇朝鮮의女流飛行家 朴敬元孃의消息

작년일월부터동경부하립천뎡(東京府下立川町)일본비행학교(日本飛行學校)에서오천여원의비용을 소비하여가면서비행술을 연구하든조선녀류비행가경북대구삼립뎡(大邱三笠町) 박경원(朴敬元)(二六)양은 지난이십오일아츰에동경항공국(東京航空局)에서 시행한삼등비행사기술시험을보고 다시비행장에서 『아보로』 이백이십마력긔를 조종하여 리륙착륙술이교묘하야사람들로하여금놀래이게하엿다한다 시험관으로 비행장에갓든 항공국아부소좌(阿部少佐)도 양의수완에는감탄함을마지아니하엿다는바 양은 조선최초의녀류비행사로장래의소망도상당하더라(립천뎐보)

‖사진은박경원양‖

### 許可업는理髮師

고양군한지면하왕십리(高陽郡下往十里) 이백이십삼번디백만룡(白萬龍)(三〇)은허가업시지난일월십륙일 오후두시경신당리(新堂里)이십삼번디 강한득(姜漢得)(一九)에게십오전을밧고 리발을하여준 리발범위반으로 동대문서에서 구류일주일에처하엿다더라

### ◇團體와集會◇

▲正友會委員會 정우회(正友會)에서는오는이월일일오후두시에시내서대문뎡(西大門町)일뎡목 륙십번디 동회관안에서 집행위원회를개최할터이라더라

### ◇휴지통

▲일본관서(關西)디방에는 처녀의얼골을칼로 베혀내이는 불량소년이 만타고 ▲머리털을베히든그들의수단이 다시발달된모양이야▲봉천중국관헌들은이주조선인에게각각으로백해를한다나▲엄마아니하면 업서질친구들이니까 마즈막으로기를쓰는것인가▲청량보고십허서허위강도고발한색주가가잇다▲두번만보고십헛드면강도질할번하엿군!


### 喘息

有年久한喘息기침病小兒百日咳等의難病도고치고急效의家傳妙藥 有限한分은申込하면無料贈呈

兵庫縣明石郡小山 ◎日輪寺

◇注意 廣告를보신後當時에必要가업슬지라도後日所用될듯한것은 ... 가만두엇다가 必要한때에보시오

# 材木

◇昭和丁卯初荷奉仕的大廉賣

板一坪 六十錢 七十五錢 九十錢 九十五錢 其他

建築、家具、製函、用材準備充實

京城府古市町電話本局長一八一番

材木商 熊野商會

# 果樹苗木 落葉松種

定價表進呈

高麗農園 成北城府旭町 振替京城一四三〇一番

◇가장滋味잇고 ◇가장아름다운 童話集이出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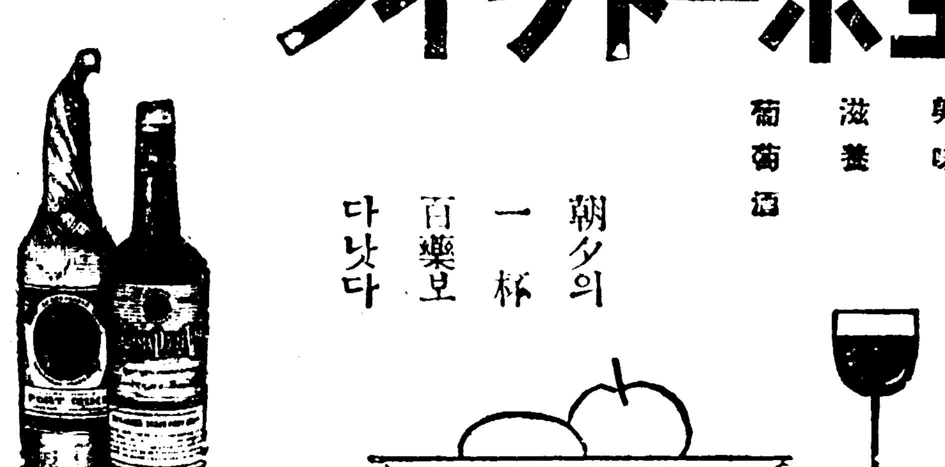
# 世界名作 教育童話集

▲全一冊 文學 ▲定價金 五拾錢 送料四錢

朝鮮의少年少女여러분!

당신은教育童話集을읽으시오。이속의이약이는中第一재미잇고有益하고教訓되는것을擇하야맨든冊이올시다。그리고또童話中에는엄지손가락을뽑는것이올시다。아즉못보시엇스면 꼭사보십시오。질거운새해!복도만히바드시려니와더욱이어엽분어린이의선물로이조흔冊을읽으시오

發行所 京城鍾路二丁目八十四番地 振替口座京城六六貳參番 永昌書館




# 催眠術講義錄

# 果樹苗木

豫約募集 安山農園 說明書 定價表無代進呈

# 趙高藥

# 仁丹

# 武藏野의가을소리 (隨筆)

＝(東京의가을)＝

盧子泳

간데업는가을의울음!
寂寞속에누어잇는지?
서리찬풀우에는귀뚜리(蟋)가울고
업어오는달밤우에는
누구를울으는귀럭이소리!
저달이만일거울(鏡)이라면
내가울고온우리故鄕의
그림은그여도비치주련만……!
―(一九二六,一一,二八日東京吉祥寺에서)―

× ×

가을이왓다 異國의가을!그러나그가을도이제는 漸漸스러저가고 찬겨울이닥처온다 가을이가고 겨울이오랴는이새의씨즌―詩人러셀그[illegible]는이때를咏하야『가을이가는때에 그네들은가슴에죽음과갓흔寂寞을 靜寂을가지게된다』하엿다 그리고 Sheridan은이때를말하여『自然의眞實한소리를가벗고두손 멜고잇는自然의뭄오지앗! 모든사람아너희는저녁날서리바람에 외로히우는그소리를 들엇는가?』하엿다 아 가을!누구나이스러저가는가을날아래 애업시떠러지는나무입소리를 듯고悠遠한寂寞을늣기지안흘가?

× ×

『가을은 사람의마음에悲哀의씨를뿌린다』 나는무려보ㅣ의이말을생각한다 나역 가을과함께 나의가슴에 悲哀의種결이넌저흘을 閉林쌉수가업섯다 그러나이것은性으로오는悲哀는아니다 悠久의寂寞을늣기고 永遠의소樂를 鑑허하는그어느마음에서 여업시소사움오는 적은눈물이잇다

×

해가지고 고요한밤이온다 하날에는 별들이 반작이고영우에는 귀덕소리가 들린다그러고 저넘어들우에서는 솨솨하고갑대나무가 바람에울고잇다

하날의별들은 옛萬年이나 저모양으로 이大地를비치고 잇섯는가 귀덕이는 누구를차저울고잇스며 갑대나무는 무엇이그립어 韻律面調를 읊외고잇는지?……외로운밤방아래서소리를듯고잇스면 이가을의大地는『永遠한渴望』에목메인哀訴와悲憫에차이것이다 그러치안으면 고요한밤과 발가버슨몸으로서 하나님을차저그뜻을알외는祈禱者와갓다

밤이깁허지고 찬바람이 지버간다 하날에서는 어름(氷)가튼달빗이 冷笑하는듯이 영우에흘너간다 보든冊을 더지고귀를 기우려면『文那국수』사라는 料理집 옆이의絃호피리소리가들닌다 國分寺로가는省線의車소리가 세를 부시는듯이안혼소리를지트다피리소리를듯고 車소리를 들으며窓을열고 멀니저便을바라보면茫茫한水平線저쪽에 다못구름낫한송이 달빗에 조는듯이아롬아롬 떠돈다 아그곳을넘어 저구름저편에 우리故鄕이잇고우리兄弟들이잇다아그네들은 가을과함께우는지 웃는지?……

×

먹을것이만코 입을것이 넉넉하고 배부르고 등덥고편안하고 즐겁고― 이러한사람들도 가을이가고 겨울이올에는 공연히 슬퍼다고들한다 쓰러지는落葉에 눈물을흘니고 구름달하날에 한숨을보낸다 그러나먹을것도업고 입을것도업고 갈곳도업고 안질곳도업는 우리兄弟들은이 차되찬가을을 엇더케 보내는지? 차되찬世上에 더욱차처지라하고 눈물의 울고잇업마다서리는가?

×

나는 外國의險路를利用하여가지고 하로에한번式은 武藏野외가을빗을 차저단인다 괴롬진앙명어려 꼿꼿히차인穀食멍이 그리고 보기조케물은싸楓입새 어업부게 빗나는갈대입새소리를 그러나나는그것보다도 슬고울니우고 안고 다리고 흥[illegible]지어 丹楓을따고 黃菊花를차저단이는그만흔사람들을보앗다 날마다百名 五百名 二千名―그네들은 깃버뛰고 즐거히노래한다 살고십다 人生이란이러케滋味잇는것이다이처럼그네들은깃버뛰이다아福밧는그네들은가을에는 丹楓 겨울에는힌눈 봄에는裏花 여름에는綠陰과바다―이大地는파연그네들에게 즐거운永遠의樂園이될것이다 나는다시 한번 Carlyle의『일이는者는 이영우에天國이오고우기는者는이영우에 地獄이온다』이말을생각한다

×

여기도幸福 저기도幸福 하나도幸福둘도幸福―學校에가면學生이넘치고 冊店에 가면冊이넘치고 汽車를타면 乘客이人山人海를일운다 政治로보아實業으로보아 敎育으로보아무엇으로 보든지 파연그네들은살엇다 生氣가잇고 氣運이잇다 그러나 우리영연헛재도不幸 둘재도不幸 그립고하나도不幸이오 둘도不幸이오 모다가不幸이오 모다가不幸이다 아우리영우에는 웨이러케 죽음과갓흔寂漠과설음만이넘처잇는가?

×

가을이온다 해가비친다 그러나그해는 여긔도비치고 우리영에도 비친다 영도그영하날도그하날 해도그해 아니우리영엔남보다기름진흙이만코우리영엔 金銀과森林과 魚族이만켓만 웨못살고 웨못먹고이러케죽어가드란말인가? 아이것이누구의罪인가?우리祖上이못난까닭인가?우리들이賤한까닭인가?

×

나무입은떠러진다 그러나 그것은 永遠한凋落은안이다 봄이오면 입이돗고 꼿치가새치면永遠의繁榮을자랑한다 그러고가을과함께 풀끗은떠러진다 그러나 그것은永遠한敗滅은안이다 봄이오면싹이피고입이떠지며 宇宙를흔들어낸다 아寂漠한가을이며 永遠한가을이며 어름어는겨울이면永遠한겨울이라 그게도꽃이피고 입이돗을 즐거운봄날이오는것이다 아우리에게도어서꽃피는봄날이도라와지이다

×

나는이러한생각을가지고 어느날武藏野우에서서 느저가는가을을바라보앗다

하날은소래가업고 영은말이업다 다못옛날의悲曲갓흔차늘한바람이 숨새로지나갈뿐이다 無限한벌판우에는보기조흔 새밧(새나무밧)이여기저기버려잇고 그숨딥갓흔새입은 붉은夕陽아래고이고이나붓긴다 벌어지소래가들니고 새소래가들니고―다시저편에서는 풀방아소래가쿵쿵하고 하품을하고잇다 限업시다으듯한 異國의벌판새밧과 杉나무와雜林이어린에의다방머리갓치 散엽시다아잇고 그넘어로멀니멀니八十里九十里를지나서 오보도졔(小佛)라는山이뵈는둣마는듯갓치어려잇다

나는벌판에안저서 故鄕을생각하고 나를생각하고나의압날을생각하엿다 사랑도하고십다 名譽도엇고십다 冒險事業도하고십고 革命運動도하고십헛다 革命詩人愛國詩人―그러나 모든것이캄캄한밤길갓햇다 나는나갈길압헛다 아어데로갈가?좁은門으로드러갈가? 넓은길로나아갈가?

하날에는悠久의沈默과永遠의平和가 숨저잇다 나는하날을바라보며 괴로운생각을피하려하엿다 톨스토이의『戰爭과平和』小에잇는『오부렌스키』公爵과가치나는하날빗의雄大를讚美하엿다알되바세푸의『란데의죽음』에 잇는란데와가치나는하날을바라보고그에게서 信仰과愛와 포ㅣ쓰를 發見할수가 잇섯다사랑―나는『Mennauara』를읽고사랑이偉大한것을알엇다 그러나나는사랑을拒絶하련다 사랑보다더큰것―나는하날의별빗아래 나의希望의줄을매고 久遠의길을것고저한다 나는 로만로만의『annettet』Sylvie를읽고이마음이더욱깁허짐을깨다랏다大悲와正義를위한―하날우에 自己마음을삭이라는 이生活을永遠히繼續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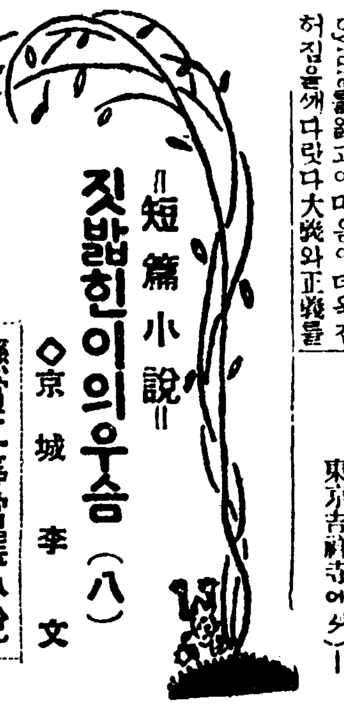
저멀니小佛山에는 夕陽이떠러저 봄이못는다山도타고하날도타고 내마음도타버리려한다 가을은가라하고밤은오라한다 晩秋荒野의가을소리!어데서말(馬)우는소리가들니고 다시우수수하고落葉치는쓸쓸은소리가들닌다 하날은울고 영은한숨쉬렵 宇山는벌거벗고 겨울(冬)의무덤에드러가려한다

―(一九二六,一一,二〇日,東京吉祥寺에서)―

## 惜陰

白水

어제를 비러하나
오늘밤이 더욱섧다
光陰이 流水갓하야
한번가면 비러거를
저닭아 네무삼단장깨여
도외오쳐 우나니



## 『短篇小說』 짓밟힌이의우슴 (八)

懸賞二等當選小說

◇京城 李文

경심이는 고개를 숙인채썰니는목소리로

『김주사 그저가엽슨저에게도정하는셈옥치고일원만주세요네?김주사에서 오날밤에 저에게돈일원을 주시면은 그것은저의목숨을 구해주시는것이나 조금도다름이업습니다 목그럿습니다더도말고일원만주세요김주사갓흔 어른에게는 돈일원이아모렷치도안은 우수운것이지만 저에게는 더욱이 오날밤저에게는일원이라는돈에목숨이달렷습니다네 저는거짓말을 햇습니다도흥이는 지금다른손님하고 자는중이예요 제가김주사에게 이러한말슴을 드리자고 그러한거말을햇습니다잘못햇습니다저는김주사에게 일원이나마 거저주십시사고 하지는안습니다 저에게돈일원을 주시는대신으로 저를으떠케든지 마음대로 하여주세요 여러도좃코 욕하셔도좃습니다 자―마음대로 해주세요마음대로……』

경심이는 조금도 주저치안코입엇든옷을 활활벗어버리엿다서가장 붓그러운곳서지도 내노흔빨가버슨몸으로김주사압헤벌떡누엇다 그러고는 김주사의마음속을읽어보라는듯이쳐다보며진에처려운 시선으로 사나히를눈하나깜짝하지안코바라보앗다

김주사는 술노해서 상괴된얼굴을간신히추스르며이놀나운광경을 액액히바라고잇섯다 하드니 그은듯연히벌떡 이러나며입술에는랭소하는듯한야비한우습을씌웟다

『홍더러운년! 너갓흔더러운년을건드려? 엣다돈일원 먹어라칵―퉤―』

조고마한 조희뭉친것이 경심이의 얼굴을맛치고 떠러지자뒤밋처 가래人침한대가 경심이입술우에 철석떠러젓다 그러고는 덧문을소란하게 여러젓기며 김주사의 나가는소리가 떠들석하게들녀왓다

경심이는 거의무슨 긔계장치나해노흔 인형모양으로 벌덕이러나서 자긔의 얼골을맛치고떠러진조희 뭉치를 허둥지둥펴보앗다

『일원이다 일원이다』

경심이는 정신업시 부르지젓다열아홉해나 되는그의 긴생애를통하야 이만큼 깃부고만족한일을당하여 본적이또 잇섯든가? 아니 이뒤몃십년이나 되는긴 일생을통하여서라도 이만큼 질거운일을또당하여볼수잇슬가? 그는빨가버슨채 치운줄도 모르고 입술우히로 흘너서떠러지는가래침을 쓰스라고도 아니하며일원짜리 지전을 펴든대로망연히 웃고잇섯다(끗)

## 「民衆과藝術」을닑고

崔湖東君에게

宋順鎰

일즉이 白耳義詩人『로덴바흐』는『藝術은 民衆을爲하야製作함은아니다 藝術을民衆에게理解식히려면 藝術을民衆의水平線까지 쓰러내야할것이나……』하고Anti-people의 對言을말한바잇섯나니 그것은古人의妄發이거니와 崔湖東君은 아즉도 如斯한民衆沒覺의罪

……靑年至上의 眞理로보는모양이다

『우리에게는 적어도 創作家가 잇는以上 文壇이업다고認定해서는아니되겟다 文壇은어듸까지든지民衆을爲하여 生진것이 아니다 우리創作家가 모되여 안진곳이 卽文壇이니……』하고 本欄에云云한 君은民衆이 가아니니 文壇은文壇自體로잇슬것이다 함이 民衆이잇거나 말거나―씨알머리업시 破滅될지라도―文人만은 唯獨存在하야 文壇을文持한다는意味로덕인다면過斷이라고할가 모르거니와『創作家는民衆만을爲해서創作할것이아니라』하는君의心算을可히알겟다 아모리 一般民衆과의生活意識을忘却하고 藝術至上의 혓소리를웨친다하여도 愚昧한듯하고도賢明한民衆의 活眼이容納지안음을奈何오?

로맨로랑의 民衆藝術論中에『不正不義를보고 鬪爭할氣勢를 내이지안는다면 全然藝術家도아니고 全然人間도 아니라』고부르짓첫거니와 强暴와不義한 時代惡에蹂躪되고잇는民衆의MoreLife를爲한藝術卽 이른바Art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and of the people의藝術이아니면 하등의[illegible] 떠서 주머니人속에넛코 라인江邊을거니는 作家가생긴다해도 人間生活의 永遠한傀儡임을도不免할것이다

그리고 다시君의말한 Bovee의『偉大한作家는理想의奴隸가된다』는말을구래여首肯하려면作家自身의 理想的goal[illegible]가아니고 全民衆生活을 基調로하는 理想임을 알어야한다 끗으로 崔君께바라기는文壇에올으려는 君의努力이헛되지 아니하야 新健한자랍이잇기를 頂祝하며 民衆의벗이되기를 다시금빌고 붓을둔는다(끗)

十月二十九日

## 童詩 서리찬아츰

소금쟁이作

시드른코쓰모쓰
눈물흘리며
시드른따리아도
머리숙이고
『오든나뷔안오니
나도갈박겐』
『오든벌(蜂)아니오니
여윌것박게』
코쓰모쓰따리아
시드른花壇
그대를따라따라
노닐든花壇

# 世界의注目을밧는 勞農의學術界

東方에留意하는現下의文壇

金東進

世界的으로有名한 쏘베트로서아 博物學者『介잇드』氏가日前日本으로부터 歸國하는途中에京城에滯留하야 氏가二十六年前에 斯學研究의資料를蒐集코저 來朝하엿든感想談을東亞日報記者에게말하고 昌德宮博物館과總督府博物館을 觀察한後 怱々한거름으로다시北行의客이되엿다

博士의路程이悤忙함으로 朝鮮에對한 學術上造詣와쏘베트로서아의學術研究方面에對하야何等說明을듯지못하엿슴이遺憾이어니와 何如間客年秋太平洋學術會議에『쏘베트로서아』로부터 太平洋方面에對한學識이豊富한多數의學者를派遣하야 多年當地의學說論을發表케하엿슴은 新興國인 쏘베트國인만큼 一府學界의驚異를 惹起한것이事實이다

本來露帝國의學術研究界는百年의長久한歷史를가지엇섯스나 革命勃發當時에支離滅裂의狀態에陷하야 學者들은 日常生活에 依據치못하게되얏슴으로 各地로衣食을求하려四散하는形便이엇다 이에當政者는學界의破滅을두려워하야 革命政府樹立當年부터流浪하는學者를歡迎하야 研究上便利와扱助를與한結果 千九百十八年에는『레닌그라드』와 莫斯科를 中心으로한二十一個學校를 中心으로하야二百個의研究團이 組織되엿고 昨年即千九百二十六年에는 九十學校에六百六十三이라는研究團이組織되여 다시금 聖『페트로그라드』府는『레닌그라드』로改名은되엿슬망정 學術의中心地로는昔日에比하야 更一層華麗한發展을나타내게하엿다

勞農의學術研究에對하야帝政時代와의差異를말해여發見하자면 根本方針이쏘베트建設에必需한農工業研究에置重한다는것이라고나할가 그러나『뿌르콥』天文臺가表二圖의作製發表는世界學術界의珍寶라는稱譽를獲得하엿스며太陽의觀測과年前의北極探險,人體心理學研究『벰그』博士의『아이누』人種研究가큰것을보니農工業研究外에도勞農의學者들이各種科學을研究함에엄마나餘裕가潮藉한지를推測할수잇다

文學方面에도 다른科學의研究에比하야 조곰도遜色이업다하니最近에始作한外國과의文學的作品의交換은 革命의宣傳物이라고도批評할수잇는 最近까지의勞農文壇의變換期라고도할수잇는者로 별서獨,墺,米,伊日,等諸國과에交換이實現되엿스며 勝次佛,土,『켜호슬로바키아』等과도 交換할計劃이라하며 極東各地方에對해서도文藝品의交換을提議하리라는消息이잇다

東方에對한若名한學者로는各門을合하야『레닌그라드』東洋大學敎授『호도롤』氏를筆頭로二十五六人을算할수잇는데 東方學者들은 七十餘年의 歷史를가진東方研究協會를 代表機關으로하고 研究의中心地로는『레닌그라드』東洋大學을指稱할수잇다 東方研究會에서는每月五六百頁의浩瀚한內容을藏한『新東方』이라는雜誌를發行한다

勞農에서東方에置重한다함은 무엇보다도 文人及詩人의作品으로도 그一面을看破할수잇는것이니 一例를擧하면『過激派의詩歌』中『셔또르•올례신』의『叛亂』을읽음으로 像想할수잇다 其詩意는 巴里의滅亡 倫敦의陷沒을豫言하고 中國人과印度人의 復活을讚揚한것이다 더욱그作者는其當時伯林에滯留할뻐이엿다하나

方今勞農에서는 中國文藝作品과 日本小說等이 露文으로飜譯이되는데 日文藝品飜譯과文壇紹介로는 東洋大學敎授로잇는 朝鮮人金[illegible]龍이라는 靑年學者가 唯一한 權威라고한다 將來勞農政府에서는 勞農人者를 外國에派遣하야 學界에貢獻할터이며 重要한大學에 外國學者를 招聘할計劃이라고하니勞農의學術界는 其國土가廣漠한만큼 더욱吾人의注目을끄다(끗)

곳아름다운 얼골이되는

백색미안수 白美顏水

도곡화장품연구소 창제의…신식백분

▲이분으로화장하시는분은누구나말할수업는아름다운얼골이되심니다

▲동경이나대판에서는상중류부인들에게이분이만히류행하는중임니다

연분이절대로업는 안전한신식백분

▲녯날분은연독의무서운것을최근의과학으로잘알게되엿슴니다

▲백색미안수는내무성위생시험소에서도무연백분으로증명되얏슴니다

發賣元 東京•大阪 桃谷順天館

▲백색미안수는각화장품점에잇소

安眠은健康의基

就寢의前에

子宮病血의道月經不順의婦人은頭痛眩暈가나며氣鬱하고짜증이나며手足과腰部가冷하야잠이잘오지아니합니다

이런婦人은就寢前에中將湯을常用하시면治病、增健、保溫의作用으로便安히줌으시게됩니다

中將湯 (중장탕)

아츰의一杯는保健과活動!
저녁의一杯는治病과安眠!

主治効能: 子宮病、血의道、히스테리ㅣ、帶下症、月經不順、逆上頭痛、眩暈、手足厥冷、下腹痛、不眠症、產前産後、惡阻

本舖에는 容體에의하야數種의中將湯加減藥이잇사오니容體를通知하시면 거긔適應한加減藥을 早速히送呈함니다

加減藥 定價十一日分 二圓

| 定價 | |
|---|---|
| 三日分 | 五十錢 |
| 七日分 | 一圓 |
| 十五日分 | 二圓 |
| 二十三日分 | 三圓 |
| 四十日分 | 五圓 |
| 八十五日分 | 十圓 |

壹圓以上は 新義州以南[illegible]

中將湯……婦人의良藥
中將球……子宮外用藥
浴劑中將湯…家庭의溫泉
實丸……小兒의良藥
津村式分娩具…出産用具
津村體溫計…計溫器의王
스가세린……옴藥

本舖 津村順天堂

本店 東京市日本橋區通四丁目 [illegible]

支店 大阪市南區長堀橋筋一丁目 [illegible]

## 地方論壇

# 商權運動과商人

會寧 一記者

一

「우리들의상업은 망하여갑니다」다못가만하여도 들어오려가질만큼절박한問題가 써여잇는赤白色의세리가어느날 발발한바람에 휘날이여會寧市街에宣布된것이아즉도새로 생각난다 會寧邑은 近年에至하야는長足의進步로써 市街地繁雜과物商의移出入이 逐年增加하는모양이다 戶數도三千餘戶의人口一萬五千餘人(內外國人全部)을 算하는처지안흔大邑이다 그러나如此한反面에 朝鮮人의商界는 도로혀 不振하는狀態로잇는中 더욱 國境方面임으로 中國人의來襲이 日加月增하야 近者에는 二十餘處에 商業據接한形勢를 가진商品陳列이 漸漸 山讀하야 간다그러나 朝鮮人商品은 漸漸衰退하야가고 商店數交는漸漸줄어드는 現狀이라 朝鮮人으로서 누가이것을看過할수잇스며 이것을對岸火觀할수잇슬가

二

現下朝鮮人의物品購買法을 一瞥하면 갓흔갑시오 갓흔物件이라도 우리商店에서 買入하지안코 반다시外國人의商店에서去來하고잇다 朝鮮人은갓득이나經濟不況으로 金融이乏을不免하는今日에 우리들의日用品買入을 外國人에게로求하게되니 이것이비록적은問題인듯하나 如此한弊害가 나날이積滯되야 우리의商界가漸次退步함은明若觀火의事實이다 이때에吾人은 엇지幻影中에서刹戍이업고自覺이업스면 우리는依然이 腐敗를免하기어려울것이며 自滅을當할것은 必然히來할原因이有할것이안인가

三

이번에會寧에發起된우리商權運動도 勿論深切한意味에서나온줄안다 그런데우리는더욱이此問題를根本的으로 엇더한方針을 考慮하지아니할수업다 우리의商權을 恢復하는데는먼저富豪에게贊助를 促進하여야하겟다 小賣商이라던지平常商人이 物件都賣入할만한商會가重要地帶에업스면 普通商人이外國人과의 商交를엇기가極難할것이다 적어도一郡에富豪로屈指된다는有產者는 一時的인利己的安逸主義를버리고 남과가치株式、合資其他資金融通機關等을 맹그러資本으로써爲先對峙하야할것이나 그다음商品으로製造工場에서 直輸入하야廉價로提供하야할것이다 그러고朝鮮人商家의 反省할要點이잇는것을 몃가지말하랴고한다

四

첫재物品陳列에方式과規模가大端이 不完全한點(가)太陽빗에物品色이날이기 쉬운것(나)顧客에눈에 物件이선뜻뵈우지 안케하는것(다)廉芥와 거미줄이店房에 널여잇는것(라)陳列한거시보기에 規律이되지못하는것(마)廉頭에裝飾이 華麗하게못하는것等이다 그리고顧客에對한親切과 信用의缺乏 言語調節을어데까지謙遜과 眞實을商家에大旨로 알것等멧가지는商業家의 絕對注意할要點일것인즉 商業家諸君은이에徹底히反省하는바가잇서 이번商權運動의目的을貫徹토록 相應하야 할지어다

# 事業成功者列傳 (二)

## 어려서父親일코 人家에雇傭生活 (一)

일곱살때부터남의집에서보기 동생들을다리고품을팔아서生活

### 商業으로成功한南浦桂麟國

西朝鮮의經濟的都市인鎭南浦에서 菓子大王의稱號를들으면서 諸種의事業에誠意이게奮鬪하야 疲弊한南浦朝鮮人商界에一條의活脈을示하는 青年實業家가잇스니 이는곳當地市街中心인新興十字通路西北隅에位置한二層屋桂麟國商店主人桂君(三二)이 그이이다

君은生活에儉素하고事業에誠勤하야 恒常勤勉服務者하고職工과가치工場에奔走하며 車夫와가치荷物을運搬하는等 一時에는主人風이업고 店員갓흠으로 君의名譽를들은이가初對面할時에는 驚嘆치아니할수업스며 一二錢엇치物品을사러온兒童을對하여도 低首唯唯하야그眞摯한態度가 自然히顧客으로하여금感心케한다고한다

◇

그런데이제君의略歷을暫間들어보면 더욱히感嘆할만하다 君은距今三十五年前即開國五百二年癸巳에 平南龍岡郡陽谷面南亭里極貧한家庭에出生하야七歲인幼年時에 그父母에게딸니어糊口의途를차자 當時의和歲南浦(即今鎭南浦)로移居하엿는데 君은最初의職業으로兒孩보기(護兒役)로 龍井里朴某家에雇入되야 三年間을잇섯는데這間에 勤勉하다는稱讚을들엇고 그後에는鮮夫이常叔의家에同居하엿는바 不幸히十四歲되든해에 그父親이突然別世한故로 君은悲痛한中에도艱難한辛苦味를備嘗케되엿스니 이는幼稚한一弟二妹의可憐한情景이엇다 君은不得已이어린同生들을다리고 故鄕인龍岡으로還歸하야 柴草負商으로三四十里되는 南浦에每日往復하고或은土器店의雇傭도되여僅僅히延命하더니 屋上加霜으로十七歲時에다시母親을失한바 그때第一慟慨은不過三歲의遺腹妹이엿는데 얼마아니되여畢竟死亡하엿다한다

◇

君은九死一生의中에서도村落에서는 아모리하여도自己의運命을開拓치못할것을看破하고 그妹氏는出嫁식히고 그弟는附近農家에雇傭으로보내고(只今은分店主任) 君은斷斷한決心을품고孑孑單身으로 南浦에와서生業을求할새 一圓五十錢의月給으로 엇던日本人의砂糖가가에雇人하엿다가 二年後에는四圓五十錢의月給으로 亦是日本人林菓子店에轉雇되엿는데 技能의練熟과職務上誠實로乃終에는四十圓의高給으로잇는 中맛흠조흔因緣이잇서 當地碑石里玉氏婦人의率婚가되여 該家族을供育하며將來百年을偕老할夫人을普通學校에入學식혀(當時에女子敎育은度外視할때임을不拘하고) 平壤女子高等普校外지卒業한後에結婚式을擧行하엿다

◇

君은靑掌이나學校에발들여노흘틈이업섯슴으로 職工노릇店員노릇할때에 夜間不眠하고漢文、算術、日語等을學習하엿나 君의年齡이二十歲에達한때 儲蓄이라고잇는 郵便貯金殘額七圓五十錢을멀어가지고 獨立的으로碑石里一隅에서「桂餅」(君의創作한洋餅)商을開始하엿슬는데 그것이잘되여四年間繼續할동안 엇던째에는每日五六十圓의收入이잇섯스나 同類인洋餅商이激增하야 漸漸薄利됨으로業을곳처當地三和町에서果物商을開業하엿더니 冬間에設備不足으로七八百圓의生補가 夜間에凍腐하여 고만그事業은全部烏有에歸하고말엇다한다

寫眞은桂麟國氏

# 全朝鮮水組의 本年度總豫算

## 千四百五十六萬餘圓

去年四月末現在全朝鮮水利組合數는七十二個所로蒙利面積十一萬一千百九十四町步이엇스나各組合의本年度豫算總額은千四百五十六萬二千九百二十八圓으로十四年度豫算總額一千六十五萬六百十二圓에比하야實로三百九十一萬二千三百二十五圓의增加이라는데 그內譯은左와如하더라

◇歲 入

| | |
|---|---|
| 組合費 | [illegible] |
| 財產收入 | [illegible] |
| 起債收入 | [illegible] |
| 其他收入 | [illegible] |
| 計 | [illegible] |

◇歲 出

| | |
|---|---|
| 管理費 | [illegible] |
| 事業費 | [illegible] |
| 起債償還額 | [illegible] |
| 其他收入 | [illegible] |

# 新綱領發表後 會員을整理

咸南安邊郡佳山青年會에서는去二十五日下午八時半부터第三回定期總會를同會館內에서開하고臨時執行部로鄭一、申敬俊兩氏를選擧한後에會員收容、規約修正、會員整理、新事業計劃等의諸件을決議하엿다는데其中特히會員整理問題에入하여는資格을喪失한會員蔡仲燦、金興善、金鳳學、李枝英、李永弼、安基鎬의六氏에對하야는大論爭外지生起되여場內는極度로緊張하엿스나結局前記六名을除名處分한에따라落名되엿스며其他委員을改選하는同時新綱領을樹立하고同十一時에閉會하엿다더라(新高山)

◇新綱領

一、우리는農村青年의敎養과訓練을期함

一、우리는農民의當面利益을爲하야鬪爭함

# 群山商業會社發起

群山港의現狀과如히되엿스나우리의商勢가伸張하야發展된群山는果然아니며兼하야우리의日常生活에時刻이라도업시아니될綿布新炭等全部가外人의供給을바다一萬五千白衣群이二十年間生活하야나온것을痛慎이生覺하는有志數人이去二十一日午後八時當地車相根氏家에서李根永、金綺泰、李根三、申士淳、趙聖三、丁斗鉉諸氏가會集하야左記營業目的을定하고群山商業株式會社創設을發起하야株式募集에着手하엿다더라(群山)

一、營業目的＝薪炭 肥料 糯以 水產物 穀物委托販路 代理業

一、發起人＝車相根 李根永 李根、外數氏

# 蔚山民友會 十九日에創立

蔚山의多數한中老階級이從來隱遁的或은傍觀的態度로잇슴을遺憾으로생각하고政治的經濟的覺醒을促進하는同時에集中的公論과힘을엇기爲하야무슨團體를組織하고저去月來로發起하엿든바去十九日當地青年會館에서多數의贊同者가出席하야名稱은民友會라하고即時創立總會의形式을밟어서綱領과規約을通過하고委員을選擧한後末盡한事項은委員會에委任하고午後五時에閉會하엿다더라

◇綱 領

一、우리는萬人의親和를保하야鞏固한團結을圖할일

一、우리는公共的精神을發揮하야地方의發展과大衆의利益을爲하야努力하며此에伴한興論의中軸이될일

一、우리는鄕黨의道德을維持하며風紀를矯正할일

一、우리는現代生活에不合한形式的儀禮와迷信的弊害를打破할일

一、우리는後進靑年의社會的敎化에留意하며그의團體的事業

# 馬山日本人의 火葬場移轉問題

## 玩月洞民猛烈運動

馬山府에居留하는日本人의火葬場은新舊馬山中央地帶인玩月洞後山麓에在하야馬山風景으로나住民의衛生上으로나하로밧비移轉하지아니하면아니될重大問題임으로數月前에該洞民이會議한結果移轉運動을開始키로하고代表者를選定하야府當局에交涉中이라함은既報한바어니와最近에至하야는洞民一同이火葬地移轉問題를積極的으로高唱함을따라代表者李廷瓚氏外諸氏가府當局에對하야正眼한交涉을開始하엿다는바馬山火葬地移轉問題는玩月洞住民만主唱할뿐아니라一般府民이切望하는바이라더라(馬山)

# 甑山青年革新 新綱領을發表

金泉郡甑山青年會에서는去二十五日午前十一時부터同面學校講堂에서革新總會를開催하고全道運氏司會下에綱領規約을通過任員選擧其他事項等을決議하얏다는데通過된綱領과決議事項은左와如하다더라(金泉)

◇綱領

一、我等은無產階級의合理的社會生活의獲得을期함

一、我等은民衆的解放戰線의勝利를得함에必要한敎養及訓練을主하야鬪爭함

◇決議事項

一、本面講習所後援方針의件

一、農民夜學開催의件

一、郡聯盟에加盟의件

# 平南緣故林 讓與願受理

## 來月一日부터着手한다고 手續方法不遠發表

朝鮮特別緣故森林令에依하야從來緣故者의讓與願을來二月一日부터明年一月三十一日外지接受하야讓與케될平安南道內의緣故林은純수히森林調査에依하야査定된緣故林이十一萬二千二百十九筆에二十二萬四千九百町步로既爲貸付된緣故權不明者가二千六百六十六筆에二萬九千四百九十四町步요土地調査에依하야國有林中緣故者가包含되엿스나調査를하기前에는알수업는것이五千七百十六件에七千六百九十二町步로郡合十二萬六百一筆에三十六萬二千八百七町步餘라는데그中筆數로最多한곳은大同郡에一萬四千一百二十八筆이요最少한것이寧遠에二千七百二十二筆이며

### 面積

으로最多한곳은成川의五萬八千七百四十四町步요最少는江西의八千二百三十二町步로그手續方法과處理方法은保命에依함은勿論이겟스나事及的一般故者의便宜를圖하리라하며出願手續에對하여는一人이同里에所在한緣故林은一件의出願으로受理할터이나그所在地가相異한時는出願名義는緣故가日人인以上同一하다할지라도事務處理上出願書를各別히하리라는데그에對하야平南當局者는말하되

『…그手續에對하여는할수의는데로一般緣故者의便宜를圖하야代書業者들의不當取得으로一通四五十錢의代書料를넘어주도록하랴합니다그리고原則上그讓與願은道에直接提出할이當然한것이나道와遠距離를隔한地方緣故者들의便宜를주기爲하여는郡이나面에提出케하야受理하도록할이조흘듯하야그러한計劃은가지엇스나아즉決定은못되엿습니다如何間二三日內로그手續法과處理大體方針을決定하야發表하겟습니다』緣故者一人의最多緣故筆數가六七筆에不過함으로總筆十二萬餘에實로緣故者數는五六萬名에達하리라고觀測된다더라(平壤)

# 巡廻探訪

—(二百十一)—

## 京畿에首郡이오 京城의藩屏 (1)

### 漸次都市化하는高陽

高陽 一記者

高陽은京畿道의首郡으로朝鮮의首府京城을環圍하고잇는關係上諸般施設에壯觀이만흐나엇더한것은너무나過大하야一郡의施設로는도로혀大不用의弊가不無하다 元來高陽郡은高句麗時代에洛乙省縣이라稱하든바新羅朝에 不하야 高峯縣이라改稱하고交河郡의領縣이되엿든것을高麗時代에는幸洲或은德陽이라하엿스며其後幾多의變遷을經過하야李朝太宗十三年에비로소高陽縣이라稱하다가成宗二年에郡으로變更하엿스며最近大正三年府郡廢合의結果로京城府에서八面과楊州郡으로부터一面을編入하야十二面으로成하엿스니地勢로말하면背後의東北一帶는國望峯과印經峯과白雲臺의三角이天을衝할듯이屹立하야三角山이되여멀리上將峯과老姑山으로더부러楊州를界하고西北은坡州와接하엿스며前面에는西南一帶는半島五大江中에하나인漢江水가洋洋히흘너水運에不便이잇슬뿐만아니라그流域에는灘戲가便宜한田畓이到處에頗多하나每年洪水期에는不少한被害를免치못한다그래서人家가稠密한東南一帶로將來堤防을築하야大京城을計劃中임으로該地域은近日土地와建物價格이漸騰하는모양이다現在戶數는二百五十五洞에三萬二百二十四戶요人口는十五萬六千一百〇六人中日本人이二千七百二十二人이오中國人이六百七十九人美國人이四十一人이居住하고잇다

## 產業界

어느나라를勿論하고工業地帶가都城外에잇슴을수밧게업는것이事實이지만京城에잇든모든工場과工業所들도近來그位置를市外地로定하게되는것을볼때에는 나날이京城의複雜해가는것을알것고 따라서京城을包圍한高陽이漸次商工業地帶化하는것을알수잇다未來에잇서 그러함뿐만아니라現在產業狀況을 볼지라도產業中商工業이第一位를占領하고잇스니工業으로는工場數가三百餘個所요總資本金이七千萬圓에達하고每年產額이四千萬圓을超過하나其中에도大規模로相當한利益이잇는것은모다日本人의經營이니崇仁面에鐘淵紡績會社와孔德里에大正製糖이며延禧面에煉瓦工場들이다그러하고在來高陽의特產品으로는恩平面의製紙와龍江面阿峴里의鍮器며漢芝面水鐵里의製釜製紙며孔德里의燒酒가흔것이잇고近日에조곰衰退하야가는것은京城三十萬人口가每日主食하는穀物의精米業等이多少活氣를보이는것갓다

◇精米業 自來로漢江沿岸은水利의便이잇는關係上下流에黃海忠淸方面과上流에春狼川方面으로부터多數의穀物이聚集하게됨으로 住民은自然히斯業을經營하는者ㅣ多하야纛島로부터 西江에至하기外지其數가本郡內에만 大小를合하야 二百以上을算하게되는바 一年間精米石數가二百餘石에達하야 其額이實로六百餘萬圓에過하며 關係職工이 五千名이나된다한다 이제其中大規模로經營하는곳은

▲尹永培精米所(西江)▲康興均精米所(西江)▲全東赫精米所(玄石里)▲張東煥 精米業(玄石里)▲劉根洪精米所(東幕)▲金洛德精米所(麻浦)▲吳圭冰精米業(麻浦)▲協昌精米所(孔德里)▲朴炳一精米所(新德里)▲李範烈精米所(西氷庫)▲李承駿精米所(西氷庫)▲朴洪信精米所(漢江)▲李原烈精米業(漢江)▲李根夏精米業(纛島)▲李愚明精米業(纛島)▲申星浩精米業(杏堂里)▲曺秉準精米業(往十里)▲洪性祐精米業(往十里)▲嚴德泰精米業(水鐵里)

◇釀酒 龍江面孔德里는自古로燒酒釀造로 有名한곳이니現今에는거의 家家戶戶마다釀造하지아니하는집이업다고하는데 供給地는大概가京城이中心이나 原來品質이良好한關係로 地方에外지販路가만흔모양인바 郡內酒數年產額은七十六萬四千餘圓이나된다하며 近日에는郡으로부터 一面一處에指定釀造場을 設置할計劃으로孔德里에는 二十萬圓의資金으로釀造株式會社를東幕에는三萬圓의資金으로 釀造組合을設立中이고 現在로年一千石以上을釀造하는 釀造數는

▲祖龍浩釀造業(往十里)▲李允國釀造業(上水踰里)▲沈命鎭釀造業(東幕)

酒類의釀造가만흔 關係를따라서 麯子의產額도相當히만흔모양이니 年產額이十萬石以上으로 其產額이二十萬圓에達하며製造所는東幕과 孔德里等地에만타한다

◇次回는高興◇

# □내고장의風俗習慣□

投稿隨意(但葉書)·薄謝進呈

## 獅子노리

◇正月보름날우리고장에는 이러한노리가잇슴니다

◇동비農軍들이總出動 한자리에서곳고뛰고謠味이게보내는노리가이獅子노리라는것입니다

◇農軍들이제各其形形色色의탈을맨들어쓰고列을지어서 가진악긔(樂器)를울리면서 집집마다 도리다님니다

◇엇던사람은獅子모양으로또엇던사람은호랑이모양으로 울긋붉긋하게황홀한모양을무미기엿닭에 아희들은勿論어른이라도처음보는이는 놀라지안는사람이업습니다

◇그래서집집마다다니면서 돈이나쌀이나되는대로 한데모아가지고는 이것을洞內公共事業에씁니다

◇婚姻器具나喪變가튼것을사두고쓰기도하지만은 그外에每年넘처드는洪水를막기爲하야江湧에축담을쌋흡니다

◇與谷泰山으로多年와흔축담이只今와서는아조紀行가치되여서 엇더한큰물이잇든지조곰도念慮가업게되엿슴니다(北靑金秉德)

# 土木費增加를非難

## 忠南道議會서論駁

土木課用自動車購入으로

忠南道評議會는지난二十四日午前十時에는諸問第一讀會一般地方費歲入歲出豫算一百四十八萬二千四百二十八圓中土木課用自動車購入豫算으로五千一百七十圓計上에對하야質疑論駁이沸騰하야場內空氣는緊張하엿는데日下道民生活의悲慘함도不顧하고道當局者가그와가치無用한豫算을增加함이失態라고論駁이沸騰하엿다더라(公州)

# 大邱貧民에同情

(日人愛國婦人會等이)

大邱日本人側愛國婦人會外三團體의主催로지난二十二日부터三日間府內元町外二個所에서同情雜誌를販賣하고그收入金八百十七圓四錢과白米八俵라는바이것으로써正初에朝鮮貧民東雲町五十戶新町百五十戶南山町百二十戶七星町八十戶德山町鳳山町合百戶總五百戶에게東雲町公設運動場과啓聖學校內에서떡(한)을만들어配給하리라더라(大邱)

# 安城釀造會社發起

安城邑內坊基里金起玉、金濟弘、李鍾武、尹顯普、金學春、李熙寧、李應七諸氏의發起로資本金十萬圓의安城釀造株式會社를創立하려고方今準備中이라는데同會社는從來에잇든安城釀酒組合을變更하야會社로創立하기로하고去二十四日에發起人總會를開하엿는데資本金十萬圓을二千株(一株五十圓)로分하야第一回拂込金二萬五千圓으로써朝鮮酒類製造販賣及附帶事業을經營할터이라는데來二月中에創立하게되리라더라(安城)

# 江景電燈料減下

## 二月一日부터實行

忠南江景電燈料金은例에업시빗싸다고不平이만튼바 論山江景에서電燈料金減下運動을한結果來二月一日부터料金을減下하기로發表하엿다는데減下料金은如左하다더라(論山)

| | 燭光 | 料金 |
|---|---|---|
| 軒 | 六 | 八〇〇錢 |
| 屋內 | 一〇 | 一、一〇〇 |
| 同 | 一六 | 一、四五〇 |
| 同 | 二四 | 一、九五〇 |
| 同 | 三二 | 二、四〇〇 |
| 同 | 五〇 | 三、三〇〇 |
| 同 | 一〇〇 | 五、五〇〇 |

五〇燭光以下電球一個〇、四五

一〇〇燭光電球一個一、五〇

普通セード一枚〇、一五〇

ト永久損料一收〇、〇七〇

新設增設費一燈金一圓

位置變更又는修繕工事費一燈金一圓

計量器新設工事費一個金二圓

休燈手數料金一燈金十錢

# 赤貧者戶別割代納

金泉郡金泉面黃金町崔昌樹氏는同町內極貧者百四十四戶의十五年度戶別割三十九圓七十六錢을代納하엿다는데氏는元來부터慈善心이豐富하야一般社會에同情이만흐며昨年에도前記崔氏와當地南山町李鍾斗氏도貧民四百餘戶의戶別割을代納한일이잇섯다더라(金泉)

# 窮民에白米分給

忠北忠州邑本町에서數萬의資本金을가지고微弱한우리商業界의窮狀을挽回코자努力하는李春雄氏는陰曆末을當하야細民의窮狀을가긍히녁이고當地警察署에依賴하야忠州邑附近에居住하는細窮民에게白米를分給한다는데當地警察署에서는忠州邑區長鄭義錫氏와協同하야方今細密히調查에努力中이라하며分給日字는陰本月二十八日午前九時부터自宅에서施行한다더라(忠州)

## 關西地方

▲侍日學校開校式 平北郭山天道教宗理院에서는지난二十三日下午一時에同宗理院內에서侍日學校開校式을擧行하엿다는바校長申□載氏의式辭를爲始하야承寬道氏의意味깁흔感想談과金俊璪氏의祝辭로盛況裡에閉式하엿다더라(郭山)

▲明東學友會定總 平北定州郡觀舟面草月洞明東學友會에서는去十九日午後一時에第四回定期總會를當地明東學校教室內에서會長池應成氏司會下에開하고過去一年間의經過報告와進行方針에對한決議事項이잇슨後任員을改選하고同十時에無事히閉會하엿다더라(郭山)

▲「農村의副業」不許可 平南安州郡安州面龍峴里曹允淑氏는農村의副業이進步되지못함을遺憾으로生覺하던바얼마前에는『農村의副業』이란雜誌를發行하고자出願中이던니不許可의處分을맛엇다는데이에同氏는다시出版法에依하야許可를어드려고한다더라(安州)

▲崇中學生會定總 平壤崇實中學校學生會第八回定期總會를去廿日午後七時同校講堂에서開하고任員을選擧하엿다더라(平壤)

## 湖南地方

◎湖銀株主總會 株式會社湖南銀行에서는지난二十三日下午二時부터當行樓上에서第十三回定期株主總會를玄俊鎬氏司會로開催하고營業報告書貸借對照表財產目錄及損益計算書等을原案대로承認하고利益金分配案을議決한後取締役九人任期滿了改選과相談役二人을選擧하고同四時에散會하엿다더라(光州)

◎殖銀群支營業開始 群山府全州通十番地에新築中이든朝鮮殖產銀行群山支店은그동안落成되야一月二十四日부터新行舍에서營業을開始하엿다더라(群山)

◎錦山青年委員會 錦山青年會에서는지난二十四日午後六時半에委員會를開催하고一般事項을決議한後來二十九日午後一時에定期總會의準備外지하고同午後十時頃에無事히閉會하엿다더라(錦山)

# 癩病患者에 二千圓同情

十年동안分與코저 統營金尙用氏

大邱癩病患者相助會에서는警察의取締도甚할뿐아니라살수가업스니우리를救濟하여달라는陳情書를齊藤總督에게護送者慶北道衛生課를經由하야提出하엿다는것은既報한바어니와그의記事를보고南統營郡統營面朝日町醫師金尙用氏로부터그런記事를보니果然딱하다는書面과함께金二千圓을十個年間分與寄贈하겟다는同情의消息이지난二十五日에前記相助會에到着하엿다는데此를接한相助會員一同七十餘名은金氏의同情에感激不已한다더라(大邱)

# 瓦耳勞夜設立

平北義州郡光城面瓦耳洞에서는文盲退治와農村啓發의意味下에當地金道俊、韓寬伯兩氏의發起로臨時夜學會를組織하고去二十日午後七時頃부터韓寬伯氏家에서講師金道俊氏가專任하여農村子弟五十

## 嶺南地方

●大興勞夜校舍新設 慶北星州郡星州面大興洞에잇는勞働親睦會에서는數年前부터洞里無產兒童을爲하야夜學을經營하야오든바校舍이업서恒常遺憾으로생각하고同會委員長李春得外諸氏의熱熱한活動으로同情金二百圓을어더草家一棟四間을二百圓에買收하야目下修理에着手中이며不遠한日字로生徒를募集하야不遠에開學式을盛大히擧行하리라더라(星州)

●馬山學校費評議會 去二十五日下午二時半에馬山府廳樓上에서馬山學校費評議會를議長代理庶務課長司會下에開催하고昭和二年度學校費歲入出豫算案을朗讀說明한後內容討議에入하다가此際에今番豫算案은重大問題가잇는바此問題에對한質問에對한責任的答辯을할府尹이出張不在한즉府尹歸馬外지休會하기로決議되여同四時에閉會하엿다는데今番會議에重大視하는問題는第二公立普通學校設置、日本人敎員採用與否、看護婦採用、學校費徵收委員採用等問題이라는데此問題에對하야는府尹과評議員間에意思가相合치아니한外에興味잇는質問戰이起하리라더라(馬山)

●桂城麵組總會 昌寧郡桂城面桂城麵子組合第二回總會를去二十日에桂城麵事務所에서開하고鄭顯朝氏의司會로理事朴濟勳氏의經過報告로매우成績이조흠에따라來年度에는더擴張하기로하엿다더라(靈山)

## ◇地方短評◇

◇全州 道評議會에서는例의禍熱生活에對한黑白을가리라고奮起한議員이잇섯스나日人議員의懷柔로結局灰色이되고말엇다고

◇金堤 公普校에서는授業料못내는學生二百餘名을그대로돌녀보냇다고學校當局者를批難하는사람도잇스나이것은現社會制度를沒理解하는사람

◇元山 水力電氣會社에서는講習所의燈을빼가서百餘名學生을休學케하엿는데그래서電氣會社도學校의休學을任意로할수잇는特權을新見하엿다고


# 毛生藥 후미나인의靈効에對하야 急告

我國皮膚科의權威田中寬博士가多年苦心硏鑽한結果創製된毛生藥フミナイン이毛母毛乳頭等毛根據部에對한營養、刺戟、殺菌、淨血等、實로毛生에必要한要素의全部를具備하야毛髮을生케하며脫毛를止하는靈効가잇슴은萬復言할餘地업시天下周知의事實인바帝都婦人雜誌의月評良好의友(東京雅陽堂發行大正十一年十二月號)에「難病을治癒한나의新藥」이란中에採錄한左의一文을兼하야新一段의力을添加함을感하나이다、玆에轉記하야世上에아직フミナイン을不知하시는老幼男女諸彦께게하와遺憾업시フミナイン의効에洛케하고저함니다

## 六十日間의忍耐로 今日의歡迎을得한吾

東京 美富子

부끄러워서執筆하기를몃번이나躊躇하엿스나、가치台哥마음으로우르시는이게도이것을나누어드리고저하야붓습니다。저는二十四歲째外지참으로結婚을하자고는生覺하야본적도업시다만幸福은엇지못할것이라斷念하고、人生을가장히呪詛하면서孤寂하게사라왓습니다。그것은제가女學校에在學中의일이올시다、남과가치十六歲의봄부터달마다잇는것도업지안엇고、肉體上에나精神上에도別로말할만한缺陷도업시長成하엿습니다。그러나저게는幾年을經하여도依然히生치아니하엿습니다。날이가면갈수록저는漸漸沈默하여지며、잇서야할것이업는故로不具者라하는觀念에게支配되여잇섯든바其中에第一쓰리고슬프고부끄러운生覺을한것은每日沐浴집에가는것이엿습니다。그것이괴로워서第一차라리自殺하여버리면하는生覺을한것도一二次가아니엿슴니다。다만그理由로서는그後學校를卒業하고도勤하는職業婦人으로立身하야獨身生活을繼續하기로하고決心하얏습니다。그래도間或新聞갓혼데毛生劑의廣告를볼때에는、살작사다가는혼자努力하야보앗습니다마는、되지안은것이만흔때문인지조곰도効驗이업서더욱더욱自己의運命은挽回할수업는것이라고、보는사람외지悲傷하게되엿습니다。그런데今年봄에田中醫學博士의創製한毛生藥フミナイン을買得하야써보앗더니亦是잘못잇지는아니하엿스나、使用方法을記한것에依한즉적어도三十日間은六七十日이나連續하야쓰지아니하면効果不現이라함으로勿論에對하야非常히疑心하면서도집흔려가라도잡는듯에비진사람갓혼마음으로根氣잇게六十日間이나쓰고잇섯더니、엇더켓슴니까。그러케外지悲觀하얏든저의毛髮은次次적어지겟슴니다。普通사람이所持하는것과조곰도다르지안케되고、보니그는身體로되여버려슴니다。그때의저의깃븜은엇지다말할수잇겟슴니까。그것이야참으로말할수업슴니다。그러나저는只今大藏省에勤務하고잇는官吏의妻로서、別로말할만한不自由도업시經過하고잇는터이며、本誌의廣告를拜見한故로저와갓흔煩悶에잡혀잇는可憐한이들이幸혀잇스면하고、廣告한것이올시다。

◎脫毛症에、男女間이서야할곳에無毛、又는薄한人、諸般毛髮이不足한人、머리털이엷은人、帽子로脫毛된人、元來毛薄한人、牛際不良한人、머리털이가늘고脫毛하는人、헌집、숭터잇는人、又는痴薄한人等諸般毛髮不足한人、一日에用하야艷妙한毛를化하게毛를生케하고脫毛를止하는田中博士의責任方劑이다。代價五十錢、九十錢、一圓六十錢、三圓、五圓五十錢

◎朝鮮文詳細說明書申込次第進呈

全國到處藥店에서販賣함니다萬一品切時는代金을添하야發賣本舖로注文하시요用法書添付小包便으로急送함니다

發賣本舖

東京市芝區田村町十八 東京藥院 電話青山三五七八番 振替東京三二八二三番

大阪市赤十字病院前 東京藥院 電話南一二四六番 振替大阪五〇八一八番


ClibPDF - www.fastio.com

# 당군의 과부해방과 손미망인의 진뎡서

◇

중국무한(武漢)에는 진절당(眞節堂)이라한 외탁할곳업는 과부(寡婦)들을수용하는 자선긔관이잇슴니다 이것은청조시대(淸朝時代) 량호지방(兩湖地方)의독지가들의긔부로된것인데그후증국번(曾國藩) 좌종당(左宗棠) 리홍장(李鴻章)등의진력으로 막대한 긔본금이생겨잘번창하여 나려오던바당군(黨軍)이무한(武漢)을 점령한후에는 그긔본금을빼아스려고진절당을 해산식히고 재산을몰수한후『사십이못된과부는 반듯이 시집가라 사십세이상이된과부라도 시집을가거나말거나자유대로하라』하는 명령을내렷다고합니다

◇불행한 과부들은 진절당에서 쫏겨나서 당장의식주의곤란이 막심할뿐아니라 장차엇더케할길을몰나 쩔쩔매는중이라고합니다그들은 손문(孫文)씨 미망인송경령(宋慶齡)부인에게 진졍서(陳情書)를 제출하엿는데그진졍서의 내용은아래와갓슴니다?

## ◇과부들의진정서◇

『우리는 송부인을국모(國母)로써 존경하고 숭배하나이다 송부인도 과부시요 우리들도 과부입니다 송부인이 우리의 국모이시니 국내의녀자들의 모범이 되실것이니 송부인이 재혼(再婚)을하실진대 우리들도아모불만이업시 깃버서 재혼을하겟슴니다 그러나손부인이 재혼을아니하시는이상 우리도 재혼을아니하려하며 우리의 존경하는 국모손부인께서 재혼을아니하시는데 우리에게만 재혼을 강제하는것은 심히억울한일이올시다』

이진졍서를 밧아본 손경령부인은 크게분개하여 진정서를당부(黨部)로보냇는데 당부에서도 엇더케처치하여야 조흘지몰나 의론이분분하다고 합니다

# 재동경조선녀자 청년동맹창립총회

## 오십여명의회원이모혀

동경(東京)에서유학하는우리조선녀학생오십여명은지난일일하오一시에 동경부하호총(東京府下戶塚)일백칠번디에서 재동경조선녀자청년동맹창립총회(在東京女子靑年同盟創立總會)를 개최하엿는데각단톄대표의축사와친일본무산청년동맹부인대표이동(伊藤)녀사는 (녀성해방운)부산계급해방이아니면아니된다는연설로 열변을토하며 일승인장하엿다고합니다 총회의사무소는동경시본향구원뎡(本鄕區元町)이뎡목칠십칠번디라이온하오스 데이호라고합니다(원사진은당일에모힌회원)

## 동요동화회

인천(仁川)『가나리』회에서는 금이십구일『토요』오후일곱시부터 동요동화회(童謠童話會)를 내리예배당에서 개최할터이라는데이번은 신년초회로성대히 개최하리라고합니다(인천)

## 가뎡고문

자궁병입닛가

(문) 저는이십삼세된녀자이온데오년전에 시집을왓사오나아직것임신이업서서 심히답답중에잇슴니다 월경은매달의사오나이틀이면 업서지고평시에도조곰식잇사옵고 그때이면하부가압푸오니 한병이안인지요 (일녀자생)

(답) 자궁병이잇는듯합니다속히치료를하십시오(긔자)

## 본사견학단

시내필운동(弼雲洞)에잇는배화녀자고등보통학교사학년생도십사명은김지환(金智煥)씨인솔아래작일오후두시에본사를견학하고도라갓슴니다(사진은 동교생일동)

# 허생뎐

—(25)—

도 적

一、칭찬할말이잇다고

二、집으로돈좀전해달나고

三、패허하는도적

四、범상한사람이아니라고

# 도셔타령 (二)

## 傳說의擴布上으로보는 人類文化의原始世界性

崔南善

◇어느한이약이의變轉은다만 遊行하는동안에 남에게가서만 생기는것이아니라 저의本處에서도 種種의因緣으로 種種의 異傳을生하게되는것이오 그것이比喩談인境遇에 變換이尤甚함을본다。왜그러냐하면 記憶과傳承의다른外에도 이것지마는 比喩하려는이의 特殊한必要를因하야 故意의變改가더해지는일도 업지아니하기때문이다。일을테면 위선前에引用한 猴鼈闍多伽로만말하야도 印度의所傳이실로一二에 그치지아니하는것이다。主要한것몃술들지라도이러하다。

◇『반자탄드라』第四卷、獲得物喪失篇의本話로정한『잣납이염통』이약이는이러하다。바다갓가운어느곳에 큰나무가한株가잇서 사철果實이열리는데 그나무에『라드암가』란잣납이한마리가살앗다。하로는『가랄암가』라는海豚이 바다로서나와서 이나무밋 보드러운細沙밧헤서 잡바저노는것을보고

『우리집에 손님으로오셧구려 果實이나 좀대접하는것이니 잡수어주시오 바로仙酒가튼 맛이잇소』

하고 果實을海豚에게주엇다。海豚이 바다서먹어본즉 과연무엇이라고할수업는 아름다운맛이잇슴으로 매우고맙게대접밧고 집으로돌아갓섯다。이로부터 둘이사이가조하저서 항상나무그늘에모여서 이런저런이약이를하면서 자미잇게세월을보냇섯다。

◇한번은海豚이 잣납이에게바든果實을집으로가지고가서 커의안해에게먹엿더니 안해가 『에그 이런맛난果實을 어대서어드셧소』 하고뭇거늘 海豚이 『나는그동안 조흔친구를사괴엇소 그는『라드암가』라는 잣납이인데 늘나에게 親切히굴고 이果實을대접하오』 하얏다。그안해가 『神仙상숫는술과갓튼 이런맛난果實만을먹고사는놈은 그 염통도분명 神仙상숫는술과 가치 맛날줄아오 나는꼭그잣납이의염통이 먹고십소、그것을먹으면 곡無病長壽하야 永生不死할줄로아오』 하거늘 海豚이 놀라서 『그것이무슨당치안흔소리요、잣납이는兄弟가치사괴어지내는親한동무인데 그염통을먹어보겟다는말이무슨말이오、그런생각은두번도하지마오』 하엿다。海豚의妻가怒하야 『당신이 시방까지내가해달나는것에 아니드린준것이업는데 이번請만은웨듯지를아니하시오、음、알앗소、당신이필시 암잣납이허고조하지내는것이오、그래서하로도빼는 날업시 海邊으로놀라나가는것이지、나는인제야당신마음을알앗소』 하고생강짜를하얏다。海豚이이말을듯고는 불이야살이야하는 안해의다리를늘어다가 커의가슴에여안고면서 겁난목소리로 『나는당신의종이오、용서해주오、나보담더 당신을사랑하는이가 이世界에는업소』 하얏다。海豚의妻가눈물을좔좔흘리면서 『그잣납이가 당신의愛人(?)이아니면 어째내말을들어주지못하오、어째내請대로죽여주지못하오、나는그잣납이의 염통을못어더먹으면 絶食하야自處해버리겟소』 하얏다。海豚은커의안해가그만 히는決心하는것을보고 이노릇을어떠케주처할지를몰라 『넷말에 부려품과 계집과 쪽과 게와 주정군과 물고기와 바삭이놈은 무엇을못잡으면 決코내놋는일이업다 하더니 과연올흔말이다。참말이노릇을어쉬하면조탕 잣납씨를죽이기로한들 무슨力法을써야한담』 하고 곰곰생각하엿다

# 동화 게으른처녀

황 덕 셩

넷날어느곳에 한량반이 잇섯슴니다 이사람은돈도만코 벼슬도 하엿스나 다만어엽분딸 하나밧게업섯슴니다 그러나 석도하지요 커녀의얼굴은어엽부나엇지나 게으르던지 밥이나낫이나 새이지안으면 밥도먹을줄몰으고 잠만잣슴니다 하로는아츰도 먹을줄몰으고잠만잣슴니다그러나그어머니는 귀애하는목소리로『악아!그만 일어나서밥먹어라 오정이되엿다』하엿슴니다 이게름방이커녀도 어머니말슴에 눈을떠보니 해는벌서오정쎄가 다되엿슴니다 인제는 더자라고해도 배가곱하더잘수가업섯슴니다게름방이커녀는그만일어날작뎡으로 입을쩍벌리고 두팔을머리우헤로 힘엇처들어 게지개를켯슴니다 아!큰일낫슴니다 그커녀의두팔은머리우로쌧친채도모지 쇠부릴수도업고 움직일수도업섯슴니다 게름방이커녀는 큰일도낫스나남이붓그럽기도하야 조고마한목소리로 어머니를 부르며울엇슴니다 그러나 여러사람들이모여와 주물느고 약도썻스나낫지를안엇슴니다 게름방이커녀는 그날부터 밥을먹어도남이먹이고 거러단겨도 두팔을처들고단겻슴니다커녀의아버지는 의원이라는의원은 보엿스나 아모도곳치는이가 업섯슴니다 할수업시 하로는사람이 만히단기는길가에다가 자긔딸의 두팔이된이야기를하고 그밋헤다가『내딸의팔을 곳쳐주는사람은 내딸을주어 사위를삼겟다』라고써서 붓쳣슴니다 이러케써서 붓친지 가이를이지내도록아모도곳치겟다고오는사람이업섯슴니다그러나사흘되던날커녀에서야몸에는다떠러지고 벼가케케무든 옷을입고 머리에는구녁이뚤려진 밀집모자를쓴 거지한사람이 들어와서『그처대감댁아기씨를 커가주시면 아기씨두팔을 곳치겟슴니다』하엿슴니다 게름방이커녀의아버지는 그만 로발대발해서『보기에도흉한놈이무엇엇재 놈어서 내쫏치라』고하엿슴니다 이것을보고잇던커녀의어머니는 『아니올시다 처음에그런말을써서붓치기가 잘못이지 커거지는 아모죄업스니 어서 곳치겟스면 곳치라』고하엿슴니다 커녀의아버지도할수업시『그러면 네가곳치면 내딸을주고 못곳치면너를 죽일터이다』하엿슴니다 그지는 속으로겁이나면서도『에라 죽더라도 부자요 량반의딸이니 한번보고나죽자』하고 한씌를생각하엿슴니다 거지는 그러하자고 단단히약속을하고곳안방으로들어가서 아기씨를두고 다른사람은다나가라고하야 내보낸 다음에 게름방이커녀를세워놋코 아!큰일낫슴니다 거지는 두말안코 치마서부터 한가지식옷을벗기것슴니다 게름방이커녀는 그만 발을동동구르며울엇슴니다아! 이것보시요 커녀의몸에는 다만 옷한가지밧게아니남고 벗겻슴니다 그래도거지는 그옷을마자 벗기라고 옷안을 붓잡엇슴니다 게름방이커녀는그만큰소리로어머니를불으며울엇슴니다 그쌔 쇠부리지도못하던 두팔은 어느사이에 거지가쏠으라든옷을 붓잡고못살으게하엿슴니다아!여러분게름방이커녀의두팔은그만 낫지요?할수업시옷가른량반의딸님은 뼈가케케무든 거지에게로시집을갓슴니다아!조선의어린이여러분도게으르게잠만자고 공부도아니하면아니됨니다 게름방이커녀를보십시요 (끗)

# 一月創作評 (一)

## 實證文學을基礎로한 構成的月評

權九玄

나는일즉이 남의作品을批評해본일이업다 批評해보겟다는 意圖나마 가저본일이업섯다 또압흐로라도 文藝批評家가되고자하는 慾求는갓지안는다 그것은『芥子의맛은 씹어보아야 안다』는格으로 엇더한作品임을 勿論하고 自己自身이親히熟讀玩味하야본다던가 그것이萬一 戲曲일것갓흐면 舞臺化하야보기前에는 그最後的價値를判斷하기어려운것이니 正當한意味의文藝批評家的立場에서 볼때에는 이것을消極的態度라고할는지모르나 第三者인他人이붓으로나或은입으로말하는 文藝의批評이나 紹介또는研究갓흔것에얼마나한價値와 信賴가잇게될것인가? 이點에對하야나는스스로懷疑的임을免치못함만안이라(그럿타고 文藝批評그물건을 本質的으로拒否하는것은안이다) 設使그럿치안타할지라도 나와갓흔拙劣한頭腦의所持者로서는 남의作品위에다敢히評筆을던저서 最高最後의價値的批判이나려지리라고는 꿈에라도 妄想해볼수업는外닭이다

簡單이말하자면 나는남의作品에對하야 好意를가진一個讀者에不過하다 엇더한好感을주는作品이면 그것을再三熟讀하며 스스로羨慕하얏고 그럿치안은作品이면 즉不快를주는作品이면 차라리沈默으로써그것을푸待接하야왓슬뿐이다 아마 이것이내自身에잇서서는 이안으로라도 가장妥當한노릇일것이다

그럼으로 여긔에내가只今붓을드는것도 이것이決코 嚴然한意味의 藝術批評家的態度에서 一一히그細部的構造와『리즘』이며 그表現上 技巧에까지 言及하고자하는바가안이다 또는末流的인 流派的傾向을指摘批判하고자하는바도안이다

다만作品이말하는 最高的精神이 那邊에잇는가? 이것을 社會的客觀意識에 즉다시말하면『푸로레타리안』이데오로지의中心的傾向인 辨證的唯物論乃至實在論的見地에서 簡單히 結論的으로批判하야 우리가가질文藝의行動性 創造性 ××性的 統一性 積極性 指導的原理를 討究하는데에잇서서 百分의一이라도補佐가된다하면 나는스스로滿足하려하는바이니


# 朝鮮之光

## 二月號 定價五拾錢 郵料二錢

◇妥協과非妥協 (無產階級前衛分子가政治運動에對하야반드시取해야될態度를論하고、그方向을示唆한論文) ……金萬圭

◇「更生의道」를읽은感想을읽은感想 (徐椿君의小브르조아의思想傾向을指示摘發하야無產階級的立脚地에서反駁) ……安光泉

◇朝鮮農業의概觀 (朝鮮農業의一般的狀態를統計的으로研究한論文) ……閔丙德

◇中國無產階級運動과그特質 (中國無產階級運動의特質을研究한好個의論文) ……李人傑

◇思想盲退治 (現下文盲退治運動에보다한거름나아가서所謂識者의思想盲病退治를痛論함) ……徐椿

◆朝鮮小作習慣의一端……金秋水
◆大寒을압헤두고……鄭大羽
◆新語鮮釋……平子生

▲▲◆ 地方新聞記者의生活苦……孟義燮
生命과意識……公小學人
孔子의樂……姜炳度

▲압집도붉은집뒷집도붉은집……黃信德
▲政治運動에對한感想……金政元
▲산시몬과푸리에……李寬求
▲職工生活十年……金永八
▲假說과實驗……朱耀翰
▲하노리……燕京學人

◇文藝時評 (新年創作評、文壇上의朝鮮主義、文藝家協會에對하야) ……金基鎭

◇廉想涉君의反動思想을反駁함 (朝鮮日報所載의民族社會運動의唯心的考察을駁한論文) ……洪起文

創作
◇小說 라、라、라。아빠、빠 (沒落하는中產階級의心理를描寫함) ……金雲汀
◇詩 바다外外六篇 (淸新한感覺能爛한朝鮮말 一이詩의자랑거리다) ……鄭芝溶
◇小說 餓死 (農村의小作人의悲慘한生活을描寫함) ……李箕永
◇小說 가난한안해 (一시골의純眞한處女의애틋한戀愛의情緒를그림) ……崔曙海
◇詩 당신께서外二篇 (純實한詩想보드라운情緖 一이새詩人의詩!) ……朴濟瓚
◇小說 세사람 (社會運動者의三個典型을描寫함) ……李亮
◇小說 무엇? (一職業人의機械的勞作과그悲哀를그림) ……崔承一

○第二鬪爭期는到來하엿다 (文藝戰線의第二期의鬪爭到來를論함) ……文袁泰

無產派文學과新傾向派文學 (新傾向派文學을解剖하고그役割의終焉을宣言하고無產文學의建設을高調함) ……朴英熙

京城府滿淨洞九五의二 朝鮮之光社 振替京城一三二七九番

# 威ワ和胃腸藥

消化第一

(容器小判型)

異常할만치消化力이强하고도巧妙히應用한가본의作用에依하야奇麗히胃腸內의掃除가됨니다

價 二十錢 五十錢 一圓 二圓

●朝鮮各地藥店에서販賣함

大阪堂島 高橋盛大堂藥局 東京神田



◆廣告도記事 (廣告도重要한一種記事이라注意하야讀熟玩味하면實益과趣味가不少하오)

京城에서方記場所에移轉하와民刑商事法律事務를誠實取扱함
木浦府南橋洞一三六
辯護士 辨理士 金明鎭法律事務所 電話五一二



登錄商標出願中

萬世 만세

질긴고무신

萬世고무

京城府中林洞 萬世고무工業所
所主(元大阪고무合資社專務) 金國鉉



# 모루히네(阿片類)解毒藥의世界的發見!

헤로인

名藥 アンチモヒン (안지모힌)

阿片、모루히네의慢性中毒에對하야、無效한것은四五回、如何한重症이라도廿回以內의靜脈注射로、的確히全治할수잇는空前無比의新藥이다。患者諸君은速히醫家에게本藥의注射를요구하시압 (說明書進呈)

價格 拾回分 金八圓 送料五拾錢 五回分 金四圓五十錢

發賣元 株式會社 黒田藥品商會
本社 大阪市北區若松町四一二 (振替大阪二一九五)
支店 東京市麻布區龍土町 (振替東京一五二九五)

團成社 電話(光)九五九番
一婦二夫 全七卷
特別豫告
驛馬車 全十卷

朝鮮劇場 電話(光)二〇五〇番
放浪者 全七卷
호리우드 全七卷
엽생이 全六卷
特別豫告
케닉스마-크 全十四卷
세-도구 全八卷
사치한가정에 全九卷


ClibPDF - www.fastio.com

# ◇安東◇

安東郡北後面渉外里 東亞局醫生 權州浩
安東郡北後面渉外里 權重淳
安東郡西後面亭川洞 鶴西學術講習會 職員一同
安東郡臨北面沙月洞 李鉉禹
안동읍남문통 도구가와리리관매소 邊在泳自轉車店
安東郡西後面 鳳停寺
安東郡臨東面水谷洞 學校評議員 柳東蓍
安東郡吉安面 面協議員 金在七
安東郡臨河面新德洞 面協議員 金道淵
安東郡臨河公立普校 職員一同
安東郡吉安面事務所 面長 金鼎漢 書記 金時永 李庠鎬 柳晋永 權武鉉 李相泰 金明煥
安東郡豐南面仁今洞 沈重鉉
安東郡豐南面河回洞 柳時慶
安東郡西後面二松川 金鳳慶
安東郡吉安面九水洞 學校評議員 金秉轍
安東邑內法尙洞 權五墩
安東郡臨北面事務所 職員一同
安東郡北後面瓮泉洞 興和局醫生 姜馨秀
安東郡北後面瓮泉洞 昌成堂藥房醫生 姜大一
安東郡西後面 廣興寺

安東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安東郡臨河面事務所 權泰□ 李在□ 李源復 金秉大 權正浩 邊進淵 權□昊 柳東淳
安東郵便局 職員一同
安東邑內 柳東著
安東邑內 權重純
安東邑內 永昌洋靴所 主 吳宇晟
安東邑內 辯護士 高木信 電話四六番
安東郡詩安面浮浦洞 李中久
安東郡陶山面宜村洞 李箕鎬
安東郡詩安面西部洞 廣濟醫院 金喜永
安東郡詩安面西部洞 柳基萬
安東郡詩安面西部洞 李中埼
安東郡詩安面西部洞 李在敎
安東郡詩安面東部洞 金鍾九
安東郡陶山面土溪洞 李尙鎬
安東郡陶山面 面長 李東泰
安東郡陶山面宜村洞 李源啓
安東郡陶山面汾川洞 李羲安
安東邑內新安洞 李泰羲

安東郡陶山面土溪洞 李源相
安東郡詩安面烏川洞 烏川俱樂部
安東郡臨河面川前洞 金昌魯
安東郡臨河面梅川洞 面協議員 金景植
安東郡詩安面西部洞 柳基泰
安東邑內 酒造株式會社
安東邑內 李用右
安東邑內 李鍾泰
安東郡詩安面西部洞 養春醫院 院長 洪鍾升
安東邑內 文房具及雜貨 安東婦人商會
安東邑內 梅田寫眞館
安東邑內 司法代書人 權寧晳
安東邑內 司法代書人 尹守璐
安東邑內 邊泰淡
安東郡豐南面箕山洞 金容得
安東郡臨河面川前洞 金廷植
安東郡臨北面柱谷洞 學校評議員 柳弘植
安東郡北後面蓮谷洞 權重淮
安東郡北後面勿閑洞 姜桂秀
安東郡西後面台庄洞 柳晉榮
安東郡西後面城谷洞 張麟燮
安東邑內 大東商會 主 金澄東
安東邑內 信洋服店 主 裵永勳
安東邑內 西洋洗濯所 金莊鉉
安東郡南先面亭上洞 金旭東
安東郡詩安面東部洞 雜貨商 李炳鴻
安東邑內西部洞 孫大日
安東邑內東門通 司法代書人 劉時逢 從業者 柳南根
安東邑內西部洞 高等理髮館 主 鄭泰模

安東邑內 齒科 徐相晩
安東邑內 沈壽鳳商店
安東邑內 李東錫
安東郡西後面台庄洞 柳時莘
安東郡西後面金溪洞 金吉煥
安東郡北後面塢基洞 金進河
安東郡臨河面松川洞 金容圭
安東郡臨河面秋月洞 金翊魯
安東郡安東面安奇洞 權鳳來
安東邑內法尙洞 金炳宇
安東邑內法尙洞 朴尙東
安東邑內法尙洞 醫師 異錫圭
安東邑內法尙洞 金中學
安東邑內 八珍屋 權世欽
安東郡臨東面事務所 職員一同
安東邑內 朝日洋服店主 孔泳駿
安東邑內 衡平社 慶北第二支社
安東邑內 高等支那料理 連順園
安東郡詩安面事務所 職員一同
安東郡詩安面西部洞 金衍植
安東郡臨東公立普校 職員一同
安東郡臨河面警察官駐在所 職員一同
安東郡吉安公立普校長 遠田正剛
安東郡吉安面泉旨洞 面協議員 權在彦
安東郡吉安面獸溪洞 面協議員代 權重萬
安東郡南後面所 面長 徐武鎬
安東邑內 東一洗濯所 李□祖
安東郡詩安面台谷洞 區長 權錫鳳
安東郡安東面法尙洞 希山醫院 徐相英
安東邑內 司法代書人 金秉洪
安東邑內 大信洋服店 沈雲燮

安東邑內 盧致敬
安東郡一直面望湖洞 趙鳳濟
安東郡豐南面仁今洞 沈圭燮
安東邑內東部洞 醫師 權寧燦
安東郡豐山面魯洞 權寧憲
安東郡豐山市場 醫師 白行謹
安東郡豐山市場 豐和醫院 邊斗漢
安東郡豐西面九潭洞 金元鶴
安東郡豐西面九潭洞 金發淵
安東郡豐西面素山洞 金義漢
安東郡豐北私立普通學校 校長 宋洛九 校監 金□燮 敎員 權泰鉉 金秉旭 金容在 文□□
安東郡豐山市場 豐四金融組合 職員一同
安東郡豐北面五美洞 金憲在
安東郡豐西面九潭洞 朴永鎭
安東郡豐山面下里洞 豐山學校學父兄會長 李光烈
安東公立豐山分校 訓導 金□漢 申相鎬 □泰□
安東郡豐山面梧谷洞 豐山公普昇格期成會委員長 權寧潤
安東郡豐山市場 自轉車商店 李命岩

安東郡豐西面佳谷洞 權準杓
安東郡豐西面素山洞 金炳千
安東郡豐西面事務所 職員一同
安東郡豐西面九潭洞 金達淵
安東郡豐西面素山洞 金昌漢
安東郡豐北面五美洞 金秉準
安東郡豐西面九潭洞 金東曄
安東郡豐西面九潭洞 雜貨商 金在謹
安東郡豐西面九潭洞 金□淵
安東郡豐西面九潭洞 金漢鉉
安東郡豐西面九潭洞 金導淵
安東郡豐西面九潭洞 金永益
安東郡豐西面素山洞 金喆鎭
安東郡豐西面素山洞 權重鎭
安東郡豐北面五美洞 金九鉉
安東郡豐北面五美洞 金軫燮
安東郡豐北面梅谷洞 南相鎬
安東郡豐山面上里洞 金泰鎭
安東郡豐山面上里洞 李準英
安東郡豐西面素山洞 金恒東
安東郡豐西面素山洞 金武顯
安東郡豐山市場 桂瑜商店 全奉植
安東郡豐山面下里洞 李準穆
安東郡豐山面麻匡洞 李械
安東郡豐北面晩雲洞 金炳湜
安東郡豐北面新陽洞 權五雯
安東郡豐北面新陽洞 金淸渶
安東郡豐山面事務所 職員一同

安東郡豐北面梅谷洞 裵永麟
安東郡豐南面河回洞 柳時求
安東郡豐北面晩雲洞 韓漢成
安東郡豐南面河回洞 柳偉佑
安東郡豐南面河回洞 花岡俱樂部
安東郡豐西面素山里 金洙東
安東邑新世洞 李春星
安東郡豐南面河回洞 柳沼佑
安東郡豐南面仁今洞 黃景五
安東郡豐南面箕山洞 朴永達
東亞日報安東支局 沈揆夏 權泰錫 李源敬 金慶漢 李世寧 權寧漢 李準文 金湘鎬
安東邑內 無名氏
安東郡豐南面河回洞 柳景夏
安東郡豐西面佳谷洞 權寧植
安東郡豐北面五美洞 五美洞消費組合
安東郡邑內 株式會社 大邱銀行安東支店

# ◇奉天◇

奉天小西關 委託兼運送業 仁昌公司 金貞煥
奉天十間房大安煙公司 金在賢
奉天十間房 朴道根
奉天十間房 洪淳文
奉天西塔 崔吉煥 (日電四一五)
奉天西塔 石炭商 利生公司 畑中常吉 朴鳳翰 (日電一一八八)
奉天十間房大安煙公司 高丙瓚
奉天十間房 朴明恒
奉天十間房 旅館兼洋服店 平安旅館 壽山洋服店 姜壽山
奉天十間房 松鶴樓 林承鶴
奉天木曾町六 金淳貞
奉天西塔大街 米穀商 元山商店 朴日洙 (日電一五五五番)
奉天大西關 朝鮮料理 奉興館 (日電一八六四)
奉天浪速通 株式會社滿洲銀行奉天支店 栗田二郞
奉天西塔基督敎會 牧師 白永燁

奉天西塔 綢緞布木海陸物産 文房諸具各種雜貨 三義洋行 朴光浩 金光淑 李東欽
奉天十間房 瀋陽吟社
奉天小西門裡 海陸物産委託販賣 東昌號 金炳河
奉天西塔大街三丁目 精米業 金城精米所 金炳泰 (日電一一七四)
奉天西塔大街三丁目 綢緞布木海陸物産各種雜貨 大同洋行 (電一五二八)
奉天永安台 黃凌閣
奉天省新民縣 公太保醫院 院長 金守鉉
奉天小西邊門外 林漢龍
奉天西塔大街 精米業 大同號精米所 (日電一五二八)
奉天西塔 奉天朝鮮人相扶會
奉天西塔大街 奉天朝鮮人勞働組合 日日勝運輸公司 組合長 池錫模 主務 白尙鎭
奉天西塔大街 奉天朝鮮人青年會
奉天西塔 趙國珍
奉天 綿織足袋
奉天松島町一二 金星商店 崔星五
奉天驛前 朝鮮旅館
奉天驛前 漢城旅館 文奎福
奉天西塔三丁目 江華陳漆分工場 裵取鉉
奉天城西旬連屯 李秉憲
奉天西塔大街三丁目 泰榮商店 李枝培
奉天十間房第五區 各種鍮器製造販賣及銅鐵貿易商 大正商會 劉宗熙 金奉珏

奉天十間房 趙鼎華
奉天小西關十字街胡同 海陸産物委託販賣 義昌合 主 鄭基炯 (中電話八四〇番)
奉天西塔 朝鮮料理 賞春館 李春卿
奉天東亞勸業株式會社 朴容益
奉天小西關小西門前 奉天十間房 友隣病院 院長 姜元永 瀋陽醫院 副院長 韓光洙 (日電五〇九番)
奉天浪速通 滿洲粟並雜穀輸出 東省實業株式會社 商事部 電話長 八一四八一五 八一六八一七 受電略 ホウテン トウセウ
美政府登記 藥種貿易商 三德洋行 支配人 玉觀彬 總經理 陸章甫 支店所在地 重慶 漢口 紹興 汕頭 廈門 廣州 梧州 香港 新加坡
奉天十間房 明濟泰
奉天十間房 徐海奎
奉天十間房 朝鮮料理 晉陽館 朴在植
奉天西塔大街三丁目 白米商 慶一商店 李時爾

昌城警察署長 林佐太郞
昌城憲兵分遣所長 北原末藏
長水郡廳 各産業團體
全南靈光邑 靈光自働車部
全南靈光邑內 雜貨商 許鍵
長春富士町三丁目 三山洋行 主任 李根昌
慶州郡陽化面魚日市 綿布雜貨 趙濟奎
錦山郡廳 朴登萬
錦山靑年會勞働夜學校
昌城郵便局長 多田萬次郞
新義州多田商會 金春澤
昌城郡昌洲面新洞 許□燮
昌城邑內 長泉旅館
全南靈光郡邑內 靈光郡廳庶務主任 上野精一
吉林省城商埠街 復興泰根棧 主任 李基元
濟州島新左面朝天港 南鮮洋襪織造工場 主 金沈洙
錦山郡廳 李甲淳
錦山郡廳 金泰源

◇사진은평원명물삼충사

## 향도레찬내고을명물 (百五)

# 壬亂當年播遷時에 宣祖王落淚處

─임란북행하시던선조대왕께서 눈물을흘리시고이집을지으셔─

### ◇平原名物 三忠祠來歷

백여번이나 자랑이서로다투어 나오도록 우리고을에서는장잡하고잇스니까 아마명물이업는줄로아실듯십습니다 우리고을에는자랑하고십흔 명물을너무 만히차지하고잇지요 하도넷적 유성(鉅城)고을때에 원님의안해가 에단는선부(船夫)의망향곡에 얼이빠저모든것을내던지고 선부를따라갓다고하는와룡산(臥龍山)머리의 해경(海景)도그럿한명물이고 섬세의명장을지공(乙支公)을나은 불국의녕악(佛國靈岳)이 또한 명물이지요 그뿐이겟습니까 흥룡한명물이더만치요마는 데일몬저자랑하고십흔것이 곳삼충사임니다

◇

미두(米斗)의곱흔봉을등에업고칭게의맑근물을품안에 안앗스며 남으로대원(大園)의년산을 향북밧고북으로덕디(德池)의봉분평야를 훔처보며서편으로학작할개를펴처참치한 만경을 굽어살피고잇는 삼충사의 우렁찬거동이야말로 자랑하지안으랴도무가내하지요 얼는보면사원(寺院)비슷한큰 집으로 정문을들어서면 무비루 (撫悴樓)라고현판한루각이잇고그안으로 송매한녕면이잇는데아직도단칭이그러덜미지안앗스며 뜰압헤는 창건당시를긔염하고잇는늙근공손수(公孫樹)가 하늘에떱히여잇지요

◇

임진란에쫏기신 선조대왕의 어가(御駕)가의주로향하실 때에 영유(永柔)에나리시여리화뎡(梨花亭)(지금은공립보통학교녀자부)에머무시고 달반을 지내섯답니다 위기일발에잇는 사직을 울얼어보시며각일각으로여지업시짓밟피는 근역과며민을 굽어생각하실때엇지옷더가안컵하섯겟습니까 너머나애달푸신마음을 풀으실곳이업서 하로는현령과 한가지로이터에 납시여서 소풍을하섯답니다압흐로 넘처보이는산수와풍경을 일일히 하문하시다가마츰와룡산(멀리서편해안에잇는길다란 산)을바라보시고는룡안에눈물이 어리시며『슬프다 넷날한실(漢室)에는 와룡선생이잇섯나라를도와섯니 이제짐의압헤는 엇지와룡산이잇슬뿐이고녀』하시고 김히탄식하섯다고합니다 그해가을환궁하실때에 또영유에머무섯는데 와룡상을못니즈시여이곳에또 올으시여뜻깁히 바라보시고 이곳에사우(祠宇)를를세우고와룡선생을 제사하라고하명하섯답니다

◇

그이듬해에선생의 영뎡(影幀)과배향할두분충신문텬상(文天祥)송악비(宋岳飛)의영뎡을아울러향사뎐(享祀田)까지 친히 하사하섯답니다 니여사우를세우고어명을받들새 왕께서뎡첵다리를만지시며 탄식하신곳이라하야루각의 이름이 무비루(撫悴樓)랍니다 세분의충렬을 고히봉안하고삼백여년을무준히직혀왓는데 근년에반도의보배를휩쓸든모리배의 마수(魔手)는여긔도거치지나지를아니하야세분의 영뎡은아지못하게 종적이사라지고 말앗답니다의연한공손수는 보기도하엿스련만엄연한무비루도 모르지는안으련만 무러볼곳조차업스니오는사람가는나그네가 다만쏫쏫항을볼뿐이지요

◇

녯적부터오월단오 철이오면읍촌의구별이업시 늙근부인젊믄새악시어린아히들이 서로다투어이곳으로 모혀올읍니다그리하야해마다 추천대회가열리고 그밧게도 여러가지유희가버려지며이삼일동안을 환락속에서 잘들놀고 헤여진답니다

投稿繼續受理 내고을명물투고

◇投稿者 平原 金松

◇薄謝 本報購讀券 三個月分

## 大同强盜

아직진위를몰라

이십오일오후아홉시경에대동군부산면신안리 (大同郡斧山面新安里)강희억(康希億)(三六)은넘원(寧遠)방면에자긔집으로도라가든도중에대동군부산면태양리(大陽里)부근에서흉긔를가진자한명이돌연히나타나서전긔강희억의품에드럿든돈십일원을강탈하여가지고 어데로 종적을감초위버리엿다는데이급보를드른소관부산면주재소에서는물론대동경찰서에서는이십륙일형사수명이현장으로달려가서목하엄중히수색중이라는바강탈을당하엿다는신고가과연사실인지허위의신고인지 그것이 분명치못함으로 방금피해자에대한취조도엄중하다더라(평양)

## 地震

◇이십사일에

◇江華地方 강화군하점양사(江華郡河岾兩寺二面)두면에서는지난이십사일오후세시팔분경에디진(地震)이시작되야동세시십일분까지계속되엇다는데문창(門窓)과 긔구(器具)등속이동요(動搖)되야 일시는일반이송구하지내엿다더라(강화)

◇白川地方 지난이십사일오후세시이십오분에황해도백천(白川)에디진이이러나삼십초가량이나계속하엿스나별반사고는업섯다더라(백천)

## 一朔未滿에 五十名死亡

◇걸리기만하면대개는사망

### 蔓延하는安州의猩紅熱

평남안주(安州)에서는홍역이크게류행하야 다수한 어린이들의 사망자가속출한다함은긔보한바어니와근일에이르러서는더욱각디로만연되야 홍역에걸리는사람은십상팔구로 사망한다는바 금년일월중으로 사망자가 벌서오십여명에 이르러 일반이십은사못흉흉하야저서 연호면동흥주재소(米湖面東興駐在所)에서는 위생강화(衛生講話)를개최하야 일반에게 홍역에대한 방법을알을가르처주리라더라(안주)

### 義州殭屍

지난십구일오전한시경에 의주군고성면 정주동(義州郡古城面正州洞)즉의주와신의주사이에통행하는큰길우에서얼어죽은 시톄한아를 통행하는사람이 발견하엿다는데 그경찰관주재소의 조사에 의지하면평안남도 안주군대림면 조양리(平南安州郡大林面朝陽里)에서거주하는김칠성(金七成)(四八)으로판명되엿다더라(의주)

단생고인(丹生高人)(三一)이잘못되야갈니어죽엇다더라(대구)

## 偽造紙幣行使 하다가테포돼

거번부터조선만주(滿洲)등디에서위조한조선은행지폐 (朝鮮銀行紙幣)일원짜리를 쓰는자가잇다함은긔보한바어니와만주사하구경찰서(沙河口署)이백팔십부번디에보처을두고일뎡한주소가업시만주방면으로도라다니는무본판(武本貞)(三二)이라는자가일원짜리위조지페를백여장이나가지고잇는것을테포하엿다더라

## 美人投身自殺

리혼을비관하고

호남선(湖南線)데이급행삼백삼십호렬차가 지난이십삼일 오후두시경에 두게역(豆溪驛)을 떠나련산역(連山驛)으로가는도중에엇던미인한사람이련산면뎐호리(連山面天護里)압굴보롤에당도하여 싸저죽엇다는데 그미인은충남론산군성동면원북리 (論山郡城東面院北里)에살든 윤긔병(尹奇炳)의안해최순남(崔順男)(二七)으로지금으로부터삼년전에 남편되는윤씨와가치 일본대판(大阪)으로건너가모든풍상에가지가지고생을 다하면서 지내든중에 우연히 남편이일본인첩을어더가지고 전긔최씨를 구박하고 리혼하여야만 가치살겟다는일본인첩의 말만듯고 결국은리혼을하자함으로 세상을 비관하고자긔친뎡으로나오든길에그와가치싸저죽은것이라더라(론산)

## 仁川海毛島附近에서 水原木船顚覆

◇구사일생한어부의묘난담

### 二名溺死、一名生還

지난이십칠일오전인천 경찰서관할부천군대부면 (富川郡大阜面)주재소로부터 본서에도착한보고에의지하면 지난십오일 새벽여섯시경에동리(東里)도선당부근해안에 엇던조선인 선부한명이배에여진 널쪽에 몸을의지하야표착되엇것을 발견하고 구조한결과 얼마후에 소생되엿다는데 그의말을 듯건데 그는수원군서신면매화리 (水原郡西新面梅花里)에사는배사공최춘범(崔春範)(三二)으로수원서목선에다 집을실코다른배사공 두명과 함께인천으로 향하든도중 그날새벽네시경에 전긔대부도 부근모도(毛島)라는곳에이르자별안간폭풍을맛나 배가전복되며 배사람은전부물에싸지고자긔만그와갓치표착되엿다 함으로 동주재소에서는 그부근을수사 한결과 수원군서신면장외리 (水原郡西新面場外里)김한보(金漢甫)(二七)의시테는 해변에표착된것을 차젓스나그외한명의생사종적을알길이업다하며 손해는 실엇든곡식백여석중칠십석이류실되여일천사백여원에달한다더라(인천)

## 火災! 火災!

## 元山에大火災

### 全半燒四戶、損害四萬

원인은아직판명되지안어

작이십팔일오전한시경에원산역(元山驛)압헤서 불이이러나상뎜세채를반소식히고 우편소한채를전소식히엿다는데 원인은 아직판명되지아니하엿다하며손해는 약사만원이라는바 마츰새벽이엿슴으로 대호상을 이루윗것고 인축사상의유무도 아직알수업다더라(원산지국뎐화)

## 岐阜大雪

두명거처불명

일본긔부현본소군 근미촌(岐阜縣本巢郡根尾村) 금관령 (今阪嶺)부근은요사이 련일하야눈이 만히와서 더싸이 일장 이삼척에 달한다는데 교통은 전부두절되얏다하며 지난이십 이일밤에는 눈사태가 잇서 산밋헤잇든인가 일호를 뒤덥허버리여 그집속에 잇든사람두명은생사가불명하다더라

## 安城에는放火

재워주지안는다고

지난이십사일오전한시경에안성군양성면구장리 (安城郡陽城面舊場里) 뎡민섭(丁敏燮)의집에 불이이러나서 집한채가전소되야 손해는 약삼백여원에달한다는데 원인은 그전날밤에엇던사람이 차저가서 하로밤재워달나는것을 거절한일이잇다는데 그자가 불을질르고종적을 감추인것갓다더라(안성)

### 安城에小火

지난이십팔...

## 和歌大火

손해삼십만원

일본화가산현유전군긔도뎡 (和歌山縣有田郡箕島町) 내외제충국회사(內外除虫菊會社)에서지난이십륙일밤 아홉시경에 불이나서 그회사를 전부태여버렷다는데 손해는삼십만원가량이라더라(화가산뎐보)

### 仁川에小火

지난이십륙일오후한시반경에인천신화수리(新花水里)일백사십팔번디김경조(金京祚)의집에서 불이나서 소동하든중이웃사람이 협력하야 큰일에이르지안코 즉시진화하엿다는데 원인은 겨버는 풀무에달은것을 집단우에다 노하 그러케되엿다하며 손해는만치안타더라(인천)

## 漂流船員救援

전남거문도서

데신국(遞信局)착뎐에의지하면 지난이십칠일 오후여덟시에 전남거문도(巨文島)에서동십해리(沖)되는 바다에서 표류한어선(流船)에일본사람두명과조선사람세명이 타고잇는것을 일본으로향행중이든데이진성환 (眞盛丸)이발견구조하야 이명은무사하나 어선은내버렷다는데 구조된사람은 이십팔일일본문사(門司)에상륙할터 이라더라

## 安休植氏出獄

치안유지법위반(治安維持法違反)으로 재작년구월십일에 평양 복심법원에서 징역일년六개월의 언도를밧고 이래진남포(鎭南浦)형무소안에서 복역중이든 안주군안주면운흥리 (安州郡安州面雲興里)이백팔십번디안휴식(安休植)(三一)씨는 지난이십사일에만기출옥하야 이십오일 귀향하엿다는데동디방동지들은대대덕으로 그의환영회를열엇다더라(평양)

## 現代評論號外

신문지법에의지하야 새로히 발간된월간잡지 현대평론창간호는 수일전에발행 되엇든바 긔사중안광천(安光泉)씨의 『무산계급의정치뎍의식』과 리헌녕(李憲寧)씨의『구미를순유하야』라는것이당국의기휘에 뎌촉되어 발매치못하고방금 그뎌촉된것만을 삭제하고호외발행을 준비중 임으로 不日간발행되리라더라

▲取消 昭和二年一月十日附本報第二面『有夫女誘引』이란題目下記事中相違된點이有하옵기玆以取消함(醴泉)

一月廿二日 醴泉支局

大正十五年十二月五日貴紙二千二百四十五號(第二面八段)同十二日貴紙二千二百五十二號(第二、三面中間欄)에記載된記事中李寅稙과本人高宇善과關係는絕對엄는事實인바同十二日에李寅稙으로부터本人에게온書信을左에公開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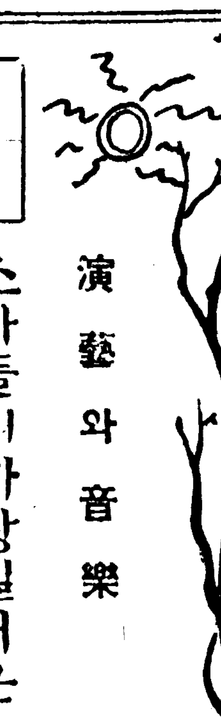
昭和二年一月 高宇善告白

(上略)이번에面長印과丈人印을僞造하고돈을變通하려다가如意치못하야犯罪된것을감추려高先生과結婚한다는口實로錯明하야放免되엿스나新聞에外지報道된것은매우未安하오나海諒千萬切望하나이다(下略)

◇天氣豫報◇ 晴一時曇

昨日正午 六三
昨日最低 七九
昨年同日正午 六八

## 演藝와音樂



### 허리우드 (6)

## 스타들의가장질거운 특작영화보절식날밤

米國映畵王國探訪記

영화시영식(始映式)을하는날가치허리우드의영화배우들의질거운날은 다시업다고한다미국에서는 독지영화가완성되어마침내어느 상설관에서 시영을하는밤에는 그영화에출연한『스타』들은물론이요 감독이며촬영기사며 그영화에출연하지아니한스타들이 극장에쇄도하록모혀서 시영식을행하는것이례가되어잇다 허리우드에는시영식을거행하는 상설관이영화왕국이니만큼 『에취엠차샤티』외에도 여러 몃군데이다 시영식을하는날밤에는 그영화를제작한회사와상영하는상설관이 협력하야 아못조록그날밤의 의식을성대히하고자노력하야『스타』들이며『팬』의입에서 감탄사가련발되도록한다『허리우드』의 일류상설관은 보통밤여덟시삼오분부터개영을하는터이나 이날에만은 보통밤여덟시삼십분에개영을하기로되엿다 그러나스타들은이성장을하고 오느라면그들은자연아홉시나되어야 자리에들어안게되는고로 아홉시가너머야비치기시작한다 그리고그날밤에한해서만은 전시세(戰時稅)를납하야 오부오십쎈스식되며대개『스타』들이 미리들다사바리는까닭으로 일반팬들은좀처럼해서는 돈을가지고도입장권을살수가업시된다 개영시간몃시간전부터 극당문전에는그야말로 립추의여디가업시관중들이 늘어서고그영화를촬영한회사측에서는 색색이며등불을켜고극당집웅에서는 어느명배우가왓다 어느스타가왓다고배우들이 도착하는순서대로외운다 개영전수십분전부터얼마동안 울녀나오자영사는시작되어 박수갈채는연일사이가업는중 영사는마치고 그영화에출연한『스타』들의 인사가시작되는데 이사방법은극당주인이무대우에올라서서 강한던긔광선을객석으로 이리저리비처가며스타들을 차저내어이스타들은그곳에 잇어서서인사를한다관주들은 또다시박수갈채를한다그런데 또한가지자미스러운것은 그광선은배우들이제아모리 안뵈일곳에 안저잇드라도꽤이지안코 과어코덕발을하야이사를식히는것 이라고한다 이리하야 봉참식은성대히마치게된다 (곳)

### 劇情 金色寢床 九卷

파라마운트社映畵 리리안리치主演

梗槪 『로버트씨』는명문가의후손으로태여나서 사치스러운생활을하다가 패가를하엿다 그는딸둘이잇스니 큰딸은『프로라』요 작은딸은 『마가렛트』라고햇다『프로라』는 어렷슬때부터 어엽부게생기여서 당상하야『싼세라』라는 공작과결혼을하얏다『프로라』는 자라나기허영에서자라나서그럿튼지 보래청질이극히사치스럽고 은란하야 남편의친구인『차바라크』공작에게추파를보내든중 그남편이알엇다 그남편은『차바라크』공작을 총살하라고가지고괴여가지고 수천걸이나되는산우에올라가서 아래로떨어저죽어버렷다 과부가된『프로라』는고향으로도라와서 어렷슬때의동무이든『아르마홀』이라고하는엿장사청년과결혼하얏다 그러나사치와 허영은바릴수가업서서 그남편의재산도전부탕진하고 돈이업서지매 그는『프니』라고하는남자에게로 달어낫다『프로라』의 아우『마가렛트』는자긔집이 파산한후『아르마』라든사람의일을보아주어 그로하야금성공케하고 그를충실히 사랑하얏다 그러나『아르마』는『프로라』에게마음이쏠리여 역시가산을탕진하고 치사의돈을횡령소비하고 감옥에 들어가게까지되엿다『마가렛트』는 그래도『아르마』가 출옥되는날을손곱아기다렷다『프니』에게가든『프로라』는『프니』에게쫏겨나서하는수업시 매음녀라고할지경이라고할 참담하게되여출옥한『아르마』의품에 안키여서 금색침상에누어 세상을떠나고말엇다 그러나한결로듯듯내충실하든『마가렛트』에게는 새로운희망과 영화가닥처왓다

◇金色寢床一場◇ ＝寫眞＝


第二號(特輯號)

# 文藝時代

今日出來

◇文藝時代特輯號目次◇

◇中板우……鄭芝鎔
◇失題……劉道順
◇농부아들의嘆息……朴世永
◇서그푼消息……鄭寅翼
◇戀慕夜曲……李貞花
◇밤길을헤매다……柳春曉
◇隨想錄……梁柱東
◇啓蒙篇……金岸曙
◇斷片語……趙重滾
◇無職……蔡萬植

◇한문글자를업시하자……주요한
◇廉想涉氏의「조그만일」……李鍾鳴
◇寸思分想……高漢承
◇放浪의一夜……金浪雲
◇두루마글……尹曉峰
◇마음의斷片……秦長燮
◇체病退治……宋影
◇冷房閑題……李赤曉
◇正誤錄……MA生
◇社會、人生、文藝……金南杜
◇旅行雜感……方仁根
◇洗心雜話……류도순

京城府西大門町一丁目二番地
文藝時代社
電話光化門一二四八番

創作

石工組合代表……宋影
斷髮美人의死……獨鵑
아이쓰크림……趙重滾
斷腸……金一葉
五錢白銅貨……鍾鳴
落魄不遇……崔曙海
새살림……尹基鼎

戲曲

그날밤……朴吉洙
바지저고리……巴人
訃音……金永八

◇追悼文……朴月灘
◇金君에게……玄哲
◇나의希望……洪海星
◇劇壇雜記……安鍾和
◇겨울밤니불속에서……李素然
◇夢遊病者의日記……沈熏
◇映畵俳優의군소리……南宮雲
◇空想三片……李慶孫
◇映畵猥談……李龜永
◇映畵追憶一束……崔二愚
◇江戶雜談……洪淳俊
◇대목漫談……崔承一

◇回想錄……崔象德
◇文筆雜感……金鳳水
◇밤길을거르며……崔湖東
◇氷香冷話……洪起文
◇雜談……崔鶴松
◇病든靑春에對하야……牛耳洞人
◇식그러운世上……洪蘭坡
◇歲暮漫談……金京泰
◇文士의발과養蜂……趙春光
◇文壇大學豫科入學試驗問題……無涯
◇文壇大豊年……金永八
◇文壇風聞錄……XYZ

地方注文은要先金
注文은總販賣所로
一部六十錢

總販賣所 京城府鍾路二丁目八六 東洋書院
電話光化門一八一二番 振替京城四九二一番

# 昨年內外貿易
## 穀食移動이增加
## 被服品及原料品出入不振

昨年中朝鮮內外貿易의그重要貿易品에對하야前年과比較하면顯著한增減은

◇輸移出品 輸移出品中增加顯中最大한것은米로그外大豆,木材,生絲,「할푸」,魚類及鑛材를合하야七八品增加額合計二千六百七萬四千餘圓에達하는反面綿絲作蠶繭,繭,砂糖,小麥及海藻六品合計一千七百十九萬三千餘圓의減少로結局本年輸移出貿易消長의大勢는거우十四品의增減으로알수잇는狀態이며右各品의輸移出額과對前年增減額을概記하면輸移出中顯著한增加는아래와갓다(單位千圓)

◇輸移出增加

| | 輸移出 | 對前年增加額 |
|---|---|---|
| 米 | [illegible] | [illegible] |
| 大豆 | [illegible] | [illegible] |
| 木材 | [illegible] | [illegible] |
| 肥料 | [illegible] | [illegible] |
| 生絲 | [illegible] | [illegible] |
| 팔프 | [illegible] | [illegible] |
| 魚類 | [illegible] | [illegible] |

◇輸移出減少

| | 輸移出 | 前年比較 |
|---|---|---|
| 綿絲 | [illegible] | [illegible] |
| 作蠶繭 | [illegible] | [illegible] |
| 繭 | [illegible] | [illegible] |
| 砂糖 | [illegible] | [illegible] |
| 小麥 | [illegible] | [illegible] |
| 海藻 | [illegible] | [illegible] |

◇輸移入品 輸移入品中前年에比하야顯著히增加한것은肥料로그外栗,煙草,砂糖等十三品이며此外에各品은各一品式보면減少는…外柔一品으로…大千餘圓增加한反面米金巾及石油의減額計九百三十七萬六千餘圓이바此外諸品은各一品式보면別로특별이업스나大概入增이다要컨대本年中輸移入品은極少數品을除外로하고一般的入增이며主要品의狀況은아래와갓다

◇輸移入增加

| | 輸移入 | 前年比較 |
|---|---|---|
| 肥料 | [illegible] | [illegible] |
| 栗 | [illegible] | [illegible] |
| 煙草 | [illegible] | [illegible] |
| 砂糖 | [illegible] | [illegible] |
| 機械 | [illegible] | [illegible] |
| 木材 | [illegible] | [illegible] |
| 鐵條及鐵板 | [illegible] | [illegible] |
| 及亞鉛鍍板 | [illegible] | [illegible] |
| 打綿 | [illegible] | [illegible] |
| 軌條及附屬品 | [illegible] | [illegible] |
| 세멘트 | [illegible] | [illegible] |
| 石炭 | [illegible] | [illegible] |

| | 前年比較 | 輸移入 |
|---|---|---|
| 印刷料紙 | [illegible] | [illegible] |
| 中國麻布 | [illegible] | [illegible] |

◇輸移入減少

| | 前年比較 | 輸移入 |
|---|---|---|
| 米 | [illegible] | [illegible] |
| 金巾類 | [illegible] | [illegible] |
| 생금 및 晒金巾 | [illegible] | [illegible] |
| 生巾類 | [illegible] | [illegible] |
| 石油 | [illegible] | [illegible] |

以上輸移出入貿易內容으로보아今年貿易의特徵은食穀移動이米를例外로前年과가치出入이大하고輸移入은事業建設材料品及原料品의需要가大槪好調이엇스나被服料品及其原料品의出入이不況을呈하엿다더라

# 米價前途
## 低價阻止觀
## 金融緩慢으로

米價는日本實收激減과前後하야反騰하엿스나米山時代로各集散市場에多數한在米가滯分되지니하면樂觀할수업고將來米不足을豫想하나一次는賣米壓迫市勢가不振하리라는念慮가잇다다만今年은一般經濟界不況으로金融이緩慢하야銀行이米貸金을唯一의放貸處로하는모양이며絕對로樂觀할수업스나朝鮮內金融緩慢은市勢低落을阻止하는原因이라더라

# 昨年中移出牛
## 四萬七千頭

大正十五年中朝鮮에서日本에移出한牛數는四萬七千七百四十九頭인바此를仕向地別로보면釜山…一萬…二百…十八頭를비롯하야山口八千…二百卅…頭廣島七千二百四十六頭、兵庫四千八百…十九頭、大阪三千五百八十四頭、福井二千百五十一頭、東京千九百六十六頭等이라더라

# 舊正과華商
## 極寂寞狀態
### ◇例年보다資金激減

舊正節을압두고…支那商의資金의動搖가多繁하엿을것이나例年에比하면極히閑散하야一銀支店한곳만볼지라도華商의舊正資金累計約七萬圓不過로例年十萬圓乃至十五萬圓에比하면顯著한閑散狀態이라더라

# 京城都市金組
## 預金貸付共增

京城市內都市金融組合의昨年末現在帳末은任置金二百四十三萬五千百九圓、貸付金二百六十萬一千七百五十四圓으로前月에比하야預金二萬七千四百五圓貸金八萬四千二百五十五圓增加이며또前年末에比하야預金六十六萬七千四百四圓、貸付金三十萬八千五百四十九圓의增加인데各組合別帳末은아래와갓더라

| | 任置金 | 貸付金 |
|---|---|---|
| 鍾路 | [illegible] | [illegible] |
| 光化門 | [illegible] | [illegible] |
| 倭城 | [illegible] | [illegible] |
| 南大門 | [illegible] | [illegible] |
| 龍山 | [illegible] | [illegible] |
| 新龍山 | [illegible] | [illegible] |
| 西大門 | [illegible] | [illegible] |
| 東大門 | [illegible] | [illegible] |
| 合計 | [illegible] | [illegible] |

# 吾族貧窮의理由

秋收期가지나고所謂農閑期로서農夫의蟄伏期인冬節을當하면男負女載하고國境을넘어山川草木이生疎하고四圍가楚歌인北滿,西伯利亞에서지流離하게되는朝鮮의現狀、西伯利亞나北滿에서지라도運身할旅費가有한者는오히려焦眉의急한이업다할수잇다 流離乞食이아니면그生의維持가切迫하게되는者가잇고 或은小部分의飽食暖衣하는者가잇다할지라도 至히不安한境遇에在한者가 果然幾許나되는가 또或은冷糟連命하는者가잇고 그러면우리의貧窮한理由가어듸잇는가 내살길내것으로살수업는關係요 또내일내손으로할수업는關係라고한다 내살길을내것으로 살수는果然잇는가 物產이나 내것이 업는것이事實이다 이업는것으로인하야 生活의標路이同時에 우리의貧窮이생기게되엿나니…

一方의 일내손으로할수업는關係이다 보아도物產獎勵는朝鮮의資本家의主張으로하자면 돈도技術도計劃도잇서야될것이며 獎勵와保護를하는것이 산업상우리에게는 돈도技術도잇서야되는것이다 그리하여 人의利益을圖謀하는者로서는 一部의有產階級을除하야는 保護를받을것이없고 無產階級을爲하야는 獎勵의理由를發見할수는 見多分의 損失이라는理論도 것이되고 …朝鮮의現狀으로보아 外…다 朝鮮物產獎勵의非運을울음하는 안된이을기대하기어려우니라 多數하지는못할지라도計劃할수도잇다 그러면 技術도업는것이다 그러나 돈도 업는것이다 우리는 아무것도업지안은야하겟다 그러나 아니하면 그러면 우리의 보는 朝鮮의富力을엇마나 가지고 잇는가 勿論無產階級으로보는 者에게는 아무것도업지안은야 資本家는全部가敵이라 하여야되는것이다 그러나 우리는人種도업다하겟스나 참으로내가 有한富力을한者가잇다 人種國境을달이한者가 所有하게되는바와 人情風俗이갓흔 한領域에서가 假使한다할지라도 强大한힘의 壓迫은 發育을못하게한다 經濟的으로獨立은可能하다는말을 理論上으로나感情上으로 할때 동일하다고는볼수업슬것이 이치에만다 그러나權力의 威壓에는不可能한말이다 우리는 現代的機械를運轉케하야 그의所產을 내것으로내살길을 經營하게되여야할것이다

# 期米
## 前場强保

二十八日 仁川

| | 當限 | 中限 | 先限 |
|---|---|---|---|
| 一節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二節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三節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四節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五節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六節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七節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八節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九節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十節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前日前止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後場稍落

| | 當限 | 中限 | 先限 |
|---|---|---|---|
| 一節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二節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三節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四節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五節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六節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七節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前日後止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取組高 (單位石)
當 [illegible] 中 [illegible] 先 [illegible]

帳入價格
當 [illegible] 中 [illegible] 先 [illegible]

賣買高
當 [illegible] 中 [illegible] 先 [illegible]
合計 [illegible]
本月總數 [illegible]

# 各店倭合

中限◇賣方 [illegible]
◇買方 [illegible]
先限◇賣方 [illegible]
◇買方 [illegible]

# 前場賣買狀況

昨後場三十一圓七十二錢에强調로止하엿는데今朝大阪初付가五厘低付하야三十六圓十二錢을報하…

# 小往來로終月

昨今阪仁步調는軟化하는듯하다가도是등强化하고好轉하는듯하다가도急히軟化하야保合市勢의幕을차리는듯하다今月로말하면月初에新甫가發會하면서即時六十七十丁이崩落하고또그러려진곳에서百五六十丁이急騰하엿스나前後騰落步幅을合算하야보면實로二百餘丁이움직이엇슴으로봄市勢로서그만하면相當한波瀾이라할수잇다設令波瀾이激烈한市勢이라할지라도如何에는保合膠着하는것도亦是市勢의律이라할수잇는데하물며材料가出盡하엿슬뿐아니라月末이迫近하엿슴으로賣買方이積極出動치아니하고彼此에서로決濟賣買할場所를전우고잇는狀態인즉月內에는別波瀾업시小往來를反復하면서終月할것갓다는觀測이多하다

昨今大阪은二十錢에軟化하야七十錢六十八錢에續落하다가大阪이十三錢에서忽然히二十二錢에强化하야止함으로⑦買로七十錢에反高하야結局七十一錢에止하엿다

大阪에又復十錢高를傳함으로七十으로잘사지안는外닭에續高치못하고곳七十七錢에弛하는際에大阪二節이急히二十二錢에强化함으로◯買로七十九錢에急高하더니當地主力側은乘告어느程度外지低押하기를期待하는光景이다

# 人氣는買慕나
## 實勢는不伴

大阪의二十六圓十錢高를當地의三十一圓六十錢高를示現하면얼마遲滯를하지못하고곳올너스는것을보면一般人氣가低押하는곳은買付하기를힘쓰는것이現著하다그리하나押目을보이면買物은殺到하되其勢永續치못하고畢竟에低迷하니이것은要컨대其買氣旺盛한것은實收減의觀念이비로소一般에徹底하야這般爆發이잇든것을곳聯想하는人氣의作用이오畢竟低弛하는것은實勢에잇서서共貨收減의影響은遺憾업시實現하엿슴으로正米實勢에내리눌리는所使이다그러하면其人氣는虛勢이오結局떠러지는것은當場正米에余制되는實勢로볼수잇는즉어느程度의산갑을내이기까지는차라리吹價買를견우는것이妙할듯하다

# 强軟材料相半

當場騰落을左右할만한材料는이미出盡하엿스나織續性의材料로는强軟이彼此相半이라할수잇다共實收減이라는것은一年中을通觀하야언제던지强材로못할에足한것이나這般爆發로그것을으로其影響을한다한것이라하기어렵다그러한즉强材便으로는其實收減을느어서바질수잇고또其反面에는무엇무엇하야도米價는當場의米自體事情이爲主임으로目下의各集散地在米가激增하야잇는것을輕視할수업다그러하면在米多量이따지자면軟材이다 그러한주로將來大勢에着眼한便은얼마동안보면만줄것을覺悟하고라도低押하는곳을보고는아니사고못견대는모양이오목下晚在米多量의威勢이한번의의솟것을생각하는便은春暖騰貴期外지를目標삼아買進하는光景이다

◎仁川正米市勢

| | | |
|---|---|---|
| ㊅等合格米 | 一石 | [illegible] |
| ㊁四等合格米 | 一石 | [illegible] |
| 無檢査地方米 | 一石 | [illegible] |
| 一等精白米 | 一石 | [illegible] |
| 正租 改良種 | 一斤 | [illegible] |
| 在來種 | 一斤 | [illegible] |

# 大阪期米

| | 當限 | 中限 | 先限 |
|---|---|---|---|
| 前場一節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二節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三節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四節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五節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六節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七節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八節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九節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十節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後場一節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二節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三節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四節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五節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六節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後場止跡氣配

◇先限 三十六圓十七錢

# 東京期米

| | | | | |
|---|---|---|---|---|
| 一節 | [illegible] | 五節 | [illegible] | |
| 二節 | [illegible] | 六節 | [illegible] | |
| 三節 | [illegible] | 七節 | [illegible] | |
| 四節 | [illegible] | 八節 | [illegible] | |

後場

| | | | |
|---|---|---|---|
| 一節 | [illegible] | 五節 | [illegible] |
| 二節 | [illegible] | 六節 | [illegible] |
| 三節 | [illegible] | 七節 | [illegible] |
| 四節 | [illegible] | | |

# 兵庫期米

| | 付 | 價 | 止 |
|---|---|---|---|
| 前場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後場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下關期米

| | 付 | 價 | 止 |
|---|---|---|---|
| 前場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後場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桑名期米

| | 付 | 價 | 止 |
|---|---|---|---|
| 前場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後場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各地延取引

釜山 賣買高 [illegible]石
穀良 [illegible] 神力 [illegible]
二月中 二月末 三月中

| | | | |
|---|---|---|---|
| 前場一節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二節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三節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四節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五節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六節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七節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八節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後場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大邱 賣買高 [illegible]石
二月中 二月末 三月中

| | | | |
|---|---|---|---|
| 前場一節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二節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三節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四節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五節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六節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後場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群山 賣買高 [illegible]石
全羅三等 [illegible] 同四等 [illegible]
二月中 二月末 三月中

| | | | |
|---|---|---|---|
| 前場一節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二節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三節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四節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五節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六節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後場一節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二節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三節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四節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株式
## 前場稍騰

廿八日 京取

▲京取二十錢高▲大新四十錢高▲鍾新六十錢高

## 依然伸氣不振

今朝에는大新阪付二十錢高인九十五圓八十錢後六圓臺乘일을보고當地도六十錢高인九十六圓十錢付價後伸氣가繼續進展치못하고反軟化하야六圓臺割의五圓九十錢大引이엿스며▲鍾新은六十錢高인百四十二圓付價後同價大引이엿고▲京取도二十錢高인二十六圓六十錢付價後不變의大引一口가잇섯다

# 京取成淸買進
## 七圓算定恢復

京取는大京側賣買疲弊로顯著한買物이업서그市勢의底意는極弱하든바今朝에成淸買進으로二十六圓六十錢付價로七圓算定을恢復하엿다그러나賣物이相當함으로伸氣가阻止되고僅僅算定恢復에不過하엿다

# 大新業績悲觀

大新은好材料缺無로人氣從益離散되야敢히손을떼이기어려운商狀이며또阪地도當地와가치賣買稀薄으로業績不振의悲觀이起하야自體의伸氣가업고오즉東新에追隨할뿐이니今朝에도東新昂騰을보고阪地九十六圓臺를示하엿스나底意가軟弱한外닭으로다시六圓臺割의無氣力한商勢를呈하엿다

# 綿絲反騰影響
## 鍾新도昂騰

綿絲는中國問題와印度輸入關稅引上決定說의成行을밧더下勢를示함을따러鍾新도百四十圓臺接近의形勢이든바今朝에綿絲反騰을보고鍾新도阪地百四十二圓三十錢付價임으로當地도百四十二圓이잇섯다

# 後場休止觀

▲京取保價▲大新十錢高

◇京取二六〇一〇〇
◇大新二六〇一〇〇一九五〇一〇〇
◇鍾新二四〇〇一三〇
[illegible]

## 前場諸株步調

成淸二〇外小口

## 前場賣買關係

◇京取二六〇(賣)大林五〇京證三〇新田五〇定岡四〇金秀八〇(買)成淸二四〇外小口◇大新二六〇(賣)白井四〇正崎五〇新田一五〇(買)京證一一〇白井一〇〇成淸四〇◇鍾新四〇(賣)新田二〇外小口(買)成淸二〇外小口

## 後場諸株步調

◇京取 [illegible]
◇大新 [illegible]

# 紐育株市場
## 花形株
### 上場計劃
### 世界各國

◇…紐育株式取引所는國際金融業者와協議한結果今回 그門戶를開放하고世界各國의 信用이잇는 花形株를 上場케되야 此計劃의起草가 終了하엿슴으로 未久에 紐育州議會의 協贊을 得할터인데 此計劃은 幾者考慮中이엿스나 今年中에는 何國을勿論하고 金本位制가될모양입으로 此結果上場될外國株는 日本을비롯하야英獨佛伊和蘭、白耳義瑞西의花形株로그種類는約百假量이될것이요또注目되는것은即外國株券公社債는發行된國의國語로印刷된原形대로大規模上場할것이즉日本株는圓價대로上場하리라하며이로由하야日本株의上場은漸次經濟狀態가米國財界에明白케되야投資不安이一掃되리라더라(紐育卄六日電)

# 大株長期早渡
## 三千萬圓制限

大株는長期早渡額을三千萬圓으로制限하고또短期假引에는制限을하야二月九日로부터實施하기로決定하엿다더라(大阪電)

# 當日取引

九州水電新株二十二圓七十錢(四十枚)東京瓦斯新株十九圓六十錢(五十枚)으로各各白井「바이가이」이엿다

# 後場諸株步調

◇京取二六〇一〇〇
◇大新二六〇二〇〇一九五〇一〇〇

# 京取短期取引

| 株名 | 前場 | 後場 |
|---|---|---|
| 京取 | [illegible] | [illegible] |
| 鍾新 | [illegible] | [illegible] |
| 大新 | [illegible] | [illegible] |

# 短期賣買成立高

合計 八四,一四〇枚 累計 一,七一〇枚

# 大阪短期取引

| 株名 | 前寄 | 後寄 | 後引 |
|---|---|---|---|
| 大新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鍾新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久原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東新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大阪長期取引

| 株名 | 前寄 | 前引 | 後寄 | 後引 |
|---|---|---|---|---|
| 鐘紡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同新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大株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同新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日糖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久原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同新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郵船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同新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東京現株前場

| | | | |
|---|---|---|---|
| 鮮銀 | [illegible] | 同新 | [illegible] |
| 東拓 | [illegible] | 同新 | [illegible] |
| 殖銀 | [illegible] | 同新 | [illegible] |
| 滿鐵 | [illegible] | 同新 | [illegible] |
| 東株 | [illegible] | 同新 | [illegible] |
| 東取 | [illegible] | 日石 | [illegible] |
| 鮮紡 | [illegible] | 富士紡 | [illegible] |

# 京城綿絲布市勢

▲粗布

| | | | |
|---|---|---|---|
| 太極星 | [illegible] | 三星 | [illegible] |
| 不老草 | [illegible] | 山 | [illegible] |
| 三神山 | [illegible] | 天桃 | [illegible] |
| 三A | [illegible] | 大A | [illegible] |
| 金剛山 | [illegible] | 雙鹿 | [illegible] |
| 煙管 | [illegible] | 貴童 | [illegible] |
| | | 人蔘 | [illegible] |

▲綿絲

| | | | |
|---|---|---|---|
| 扇面16 | [illegible] | 雙女 | [illegible] |

▲細布

| | | | |
|---|---|---|---|
| 飛犬13 | [illegible] | 鳥 | [illegible] |

▲晒金布

| | | | |
|---|---|---|---|
| 金鼎 | [illegible] | 進軍 | [illegible] |

▲晒木綿

| | | | |
|---|---|---|---|
| 竹 | [illegible] | 文 | [illegible] |
| 票 | | 橋 | [illegible] |

# ◎大阪三品

| | 前寄 | 前引 | 後寄 | 後引 |
|---|---|---|---|---|
| 一月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二月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三月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四月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五月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六月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七月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大阪綿花

| | 前寄 | 前引 | 後寄 | 後引 |
|---|---|---|---|---|
| 三月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七月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橫濱生絲

| | 前寄 | 前引 | 後寄 | 後引 |
|---|---|---|---|---|
| 當限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先限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京城手形交換

枚數 [illegible]
金額 [illegible]

# ◎朝鮮銀行券

廿七日

發行高 [illegible]
正貨準備 [illegible]
保證準備 [illegible]

# ◎日本金利

廿七日 東京 大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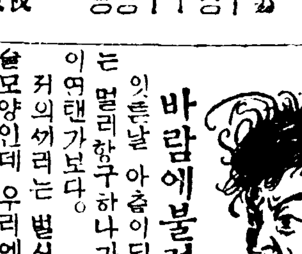
| | 東京 | 大阪 |
|---|---|---|
| 無條件 | [illegible] | [illegible] |
| 翌日物 | [illegible] | [illegible] |
| 越月物 | [illegible] | [illegible] |
| 六十日 | [illegible] | [illegible] |
| 普通割引步合 | [illegible] | [illegible] |

# ◎海外經濟

廿八日着 (一錢單位)

倫敦銀塊 二六片一六分一五
紐育銀塊 五七仙八分五
米綿 不變
印綿 十錢高
英米爲替 四弗八五仙七分一
ス털 一五二弗八分七
아나콘다 四七弗八分一

# 流浪【一四】
長白山人 作
丹谷 畵



바람에불려(二)

잇흔날 아츰이되엇다。배앗헤는 멀리항구하나가보엿다。이것이 연태인가보다。

우리에게는 벌서 아츰먹엇슬모양인데 우리에게는 아모소식도업다。우리는 지난밤을굽박새웟다。

『연태에다왓나보다』

하고 나는밧게서 들어오는길로 누이에게 말하엿다。

『이놈들이가만잇슬가요?』

하고 누이는근심스럽게뭇는다。

『엇다。이 백원을랑 쑹쑹네가 감초아두어라。오십원만 주어보고 그래도안듯거든 백원꺼지는 주어보자』

하고 나는백원을 내지갑에남기고 백원을누이에게주엇다。누이는 그것을손人수건에 꼭꼭싸허 허리에 집어너코 헛너치나아니하엿는가하야 손으로 그우를 어보고 또닥또닥두다려보고 그리고도한번더만지어보고그런뒤에야 안심한드시머리를만지며,

『그래도안들으면엇지우?』

하고눈을부라린다。

『업다!』

하고나는 서양人 사람모양으로 두팔을두엽구리에 터대고 쑹쑹보를노려보앗다。

『쓰바우쓰쾌업서、연타이부취(안가)、도로딸리멘가!』

하고쑹쑹보가 나를바라본다。

『업서!』

하고나는 입을다물고 고개를흔들엇다。

쑹쑹보는누이를힐끗보더니손을내밀어 누이의팔을삽아끌며,

『니듸돈이업서、니듸씨푸(안해)워듸씨푸、가!』

하고누이를끌어내란다。누이는 한손을들어 쑹쑹보의 뺨을떠리며,

『이도적놈이웨이랴!』

하고소리를지른다

나는손을 들어쑹쑹보의 왼편관자人노리를 부서지어라 하고 냅다갈것다。쑹쑹보는 그바람에 누이를노코 어쿠人소리를치며、모으로 쓸어진다。나는그놈의쇠리를 손에감아쥐고 그대가리를 마루창에 열아문번이나 부듸人고그리고도 부족하야 발人길로 그놈의 양도야지가튼 복장을힘것거더찻다。쑹쑹보는 『쿵쿵』人소리를 두어번하고는 입에거품을문다。

나는배우에서 쿵쿵하는。소리를들엇다。

『얘어서밧그로나가자。이속에잇다가는 꼼작못하고 죽을것이다』

하고내가 먼저츱입구로 뛰어나오고누이를쓸어올렷다。손에는 호인넷이 욱밀려온다。나는 도끼와 칼과몽동이를들고 내동뒤에 숨기고 륙혈포를번적 내어들엇다、

『이놈들덤비여라!』

하고눈을부릅떳다。

한다。

『안들으면 최후수단을줄수밧게업지』

하고 륙혈포를내어 탄환다섯방을뵈운뒤에 올호편엽구리에 보이지안케 꼭실렷다。

이윽고 어린호인이 오더니、

『쌍궈듸 야오늬문 라이(주인이 너희들오래다)』

하고 명령을던한다。

『이놈이 인제는안키서호출을하는구나』

하고 나는어성을돕혀 그 어린호인더러、

『야오라 라이 칠러(그놈더러 이리오래라)!』

하고 호통을해엇다。

어린호인이 가더니 이윽고 쑹쑹보가와서 럭으로 이리나오라는뜻을보인다。나도 럭으로 이리들어오라는뜻을 보엿다。쑹쑹보는 마지못하야 들어오더니 손을불쑥 내어밀며,

『우바쾌!』

하고 소리를지른다。

『업다!』

하고나도소리를질럿다。

『오십원갓고십건가져라、실커든말어!』

하고오십원을내어던지엇다。쑹쑹보는 오십원을 집어너코 나서、또손을내어밀며,

『하야오(또)쓰바우쓰쾌(사백오십원)!』

社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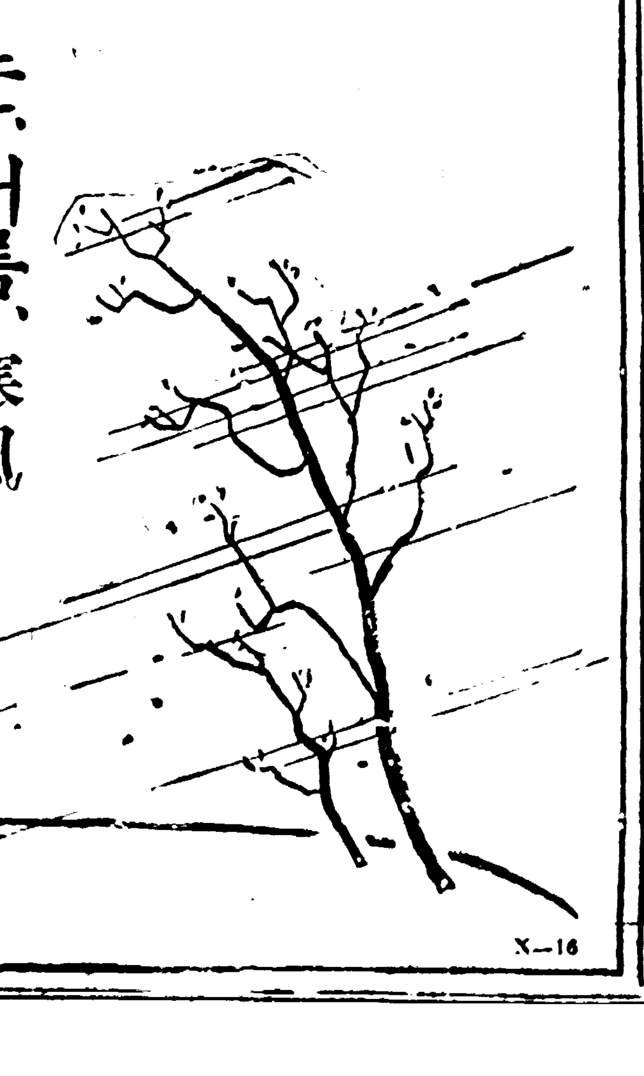
一、名稱 宜寧支局
一、位置 宜寧郡宜寧面中洞
一、區域 宜寧郡一圓
一、職氏名
支局長 李泰秀
記者 河尙淸
記者 卞應周
顧問 姜正熙
顧問 盧奎東

右와如히支局을設置하얏사기에社告함

東亞日報社

本日 學生必携 高級娛樂
카-드애-스앤-ㄹ着荷
定價並製五十錢 上製八十錢
京城府壽松洞八番地
發賣店 培英書館

메리-


눈,어름,寒風 쌋듯한美白料
메리-는바르면바듯하야、아모리치운아츰에라도쉬듯한기운이족음도업습니다
참으로히고아름다운絹으로싼듯하게、살을갓구고、것친것을막습니다
一品으로一分에 살이곱고 희게되는 二重化粧作用
大瓶六〇錢 小瓶三五錢 小瓶하나로한분이한달을쓰실수잇습니다
東京 大阪 本舖 平尾贊平商店
X—16

입을만한송고직
신을만한송고양말
◎새옷감!! 松高織!!!
婦人衣次 치마、저고리
紳士衣次 바지、저고리주、의와이샤쓰
小兒衣次 개량복、여러가지
洗濯하실때에양재를은使用치마십시요
◎松高洋襪
婦人用 茶色 黑色 白色 米色 其他
女學生用 〃 〃 〃 米色
紳士用 〃 〃 〃 灰色
學生用 〃 〃 〃 灰色
옷감은各布木店에 양말은各雜貨店에 下命하야주시옵소서
開城 松都高等普通學校實業場